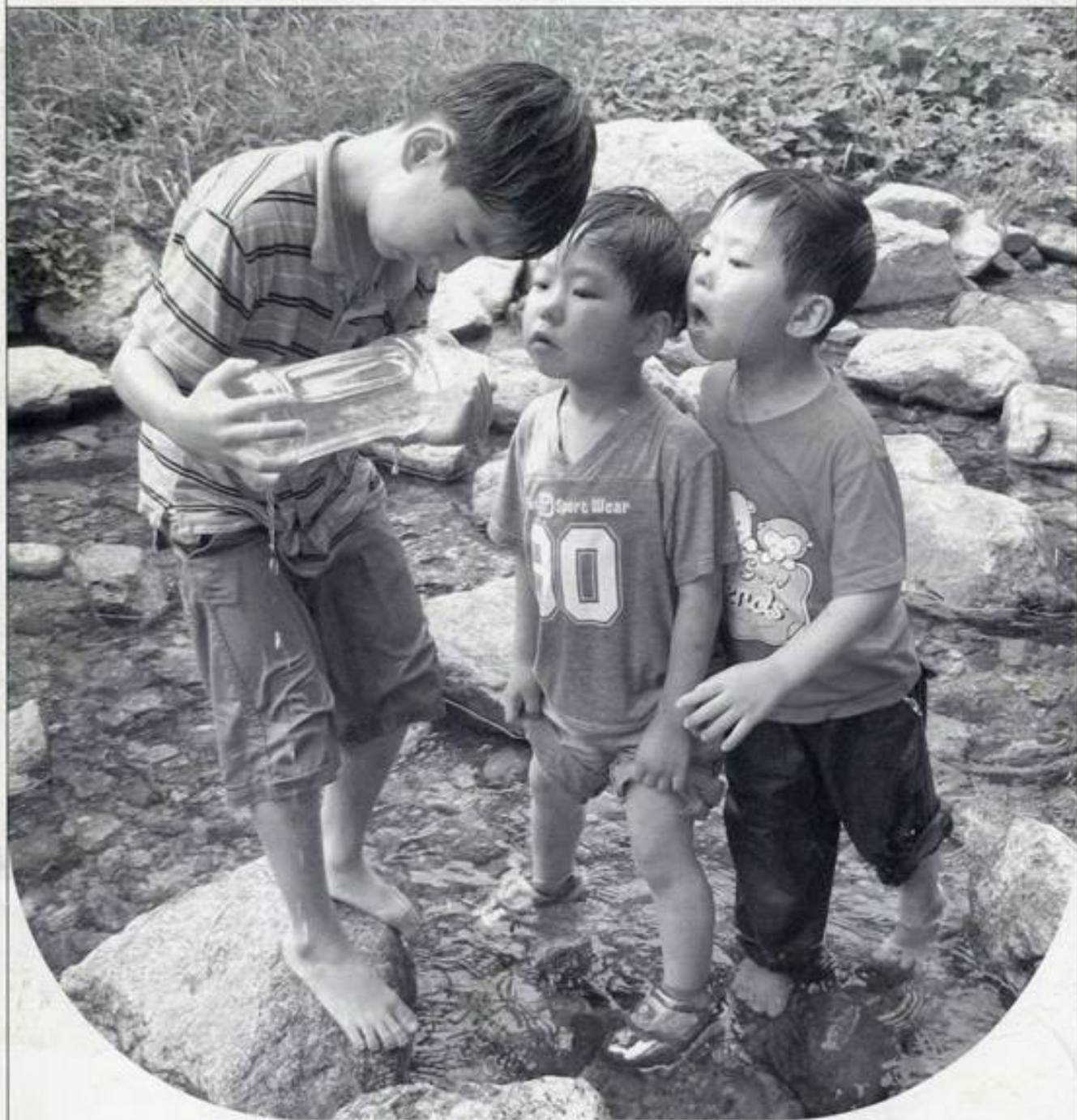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7 | 8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2가 190-10 여성평화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떤이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률 105 호 2005년 07/08 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서은희 | 목은이 이강선주, 류지민, 이성봉, 김희정

펴낸날 2005년 7월 18일

2	여는 글 I Think You're Wonderful	이경아 번역
3	보육정책 원칙 없는 여성부, 보육의 공공성 포기할건가?	이윤경
11	보육활동 아동교육	"비폭력 대화"를 소개합니다. 박근덕
14	인권보육	"존대 말과 반 말" 이경녀
19	인권보육	아동인권 워크숍에 다녀와서 박효정
20	평등 7차년 보육기	비가 손님이야? 평등어린이집
24	좋은 그림책소개	비 오는 날, 무얼 할까요? 이지영
27	그림책을 읽어주고	토끼한번 잡아먹어 본 적 없는 늑대, 물루이 이야기 지정희
29	보육활동재안	어린이 안전 가정연계프로그램 고영미
43	장애인의 대안학교 보육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 공터의 기억으로부터(2) 성애원 · 정리 편집부
49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고정미
54	함께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대하여 윤산영
57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해맑은 세상아이들 이야기 해맑은 세상
59	보육교사일기	토끼풀 속에서 찾은 행복 사진희
62	육아일기	좌충우돌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6탄 김수연
65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이살림, 농촌살림, 생명살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류지민
68	중앙활동 활동보고	아동인권감수성키우기워크숍 개최 바 편집부
74	세상읽기 피리 부는 아저씨를 부를까요?	박희영
77	특별기고 좋은 아빠 되기 시·작	나병도
80	기타소식모음 알림란	
82	소식과 소식	
84	후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6	편집후기	

I Think You're Wonderful

Red Grammer가 노래함
http://www.redgrammer.com

"넌 정말 놀라워"

누군가 내게

너무나 놀라운 느낌이 든다고 말할 때

나도 똑같은 말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 진다네

당신도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게 된다네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이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서 매일매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줄 때

우리는 한 번에 한 마음씩 세상을 고양시키게 된다네

그 모든 것은 이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네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주고,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매일매일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네.

당신도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게 된다네

이강아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원칙 없는 여성부, 보육의 공공성 포기할건가?

이윤경 ·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지난 6월 14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여성부 보육업무 1년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0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노동, 여성, 시민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아예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진행된 것이다. 또한 보육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여성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1. 기자회견의 전후

작년에 육아지원정책이 발표되면서 차등보육료지원대상의 확대와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예산규모를 기획하기 위한 전국 보육실태조사가 04년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올 초에 발표예정이었던 2차 육아지원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존재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약인 "낳기만 하라, 키워주겠다"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되었고 낳아도 버려지는 출산율에 대한 위기 의식 속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기에 5월 4일 예정되어 있던 청와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내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발표는 미뤄지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느니 하면서 들려오기 시작한 보육정책의 운과는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 공식발표가 미뤄지면서 나온 이야기는

[국공립과 민간시설간의 형평성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시설이용자와 민간시설이용자간의 비용부담을 동일하게 하되, 현실화된 보육료기준을 마련하며 기존에 인건비 지원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 1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의 형평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육구와 그것을 감당할만한 능력 이 있는 계층은 자유롭게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시설 설치,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있다. 이 자율시설의 핵심은 정부지원없이 부모의 보육료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따라서 "각 시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따라 원하는 만큼 보육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데 있다. 사실상 보육의 시장화를 의미하는 자율시설(정부는 이를 예외 허용시설로 표현하기도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나¹⁾ 문제는 경제논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하는 재정경제부 등 일부 경제부처에서만 제기되던 이 논의가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을 나름대로 이야기해 온 여성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자율시설의 허용은 보육의 공적 서비스임을 포기하는 정책이며 동시에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보다는 개별가정의 선택권(선택할 것도 선택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권)을 운운하면서 보육을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예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 마련한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²⁾과 이를 오로지 지자체의 책임과 무관심으로만 물고 가는 여성부의 단일한 태도 속에서 80%이상 민간이 주도하는 보육현실을 감안할 때 자율시설 허용논의는 보육의 시장화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제기해왔던 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2. 평가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한국보육교사회, 전국보육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공동육아,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평가토론회에서 각 발제자와 토론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전히 보육은 공공서비스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료자율화 논의는 폐기되어야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체별로, 또 토론에 나선 현장주체들에 따라 강조점이나 세부사안별로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대체로 자율화 반대,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보육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강조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성부 보육기획과장은 자율화에 대해 여성부가 논의하거나 입장을 확정하

1) 2002년도에도 보육료상한선폐지에 대한 논란으로 각 시민단체가 긴급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 04년도의 경우 겨우 20개소만이 증가되었고 여성부 이관 후 겨우 5개소만이 증가되었다.

적이었다는 모호한 대답을 하여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주 발제를 맡은 김종해(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성부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 하나, 지난 6월10일 열린 전국보육인대회에서 한보련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반대" 플래카드를 건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많은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국공립시설과는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규설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역시 항상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황운옥 사무총장이 제기한 것처럼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보육문제에 대해 원칙과 방향이 없는 건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헤매고 있기 때문인 걸까?

3. 다시, 보육의 공공성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이용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0%가 안된다. 또 전체 보육비용 중 정부 부담율이 30%정도에 불과하며 이 비율조차 보육노동자의 저임금에 기초하여 책정된 비현실적인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이다.

작년 실태조사와 보육료단가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아직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실제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이 현재 부모가 내는 보육료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더 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³⁾에 따르면 50인 규모일 경우 0세아(80만원~110만원), 2세아(42만원~57만원), 5세아(27만원~35만원) 등 모든 연령에서 현재 국가지원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보육비용이 계산되고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준을 현 국공립보육시설 보수기준으로 맞추고 이를 보육비용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 수준도 병설 유치원교사급의 65%수준이다.)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동시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보육료수입만으로는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시설의 속성상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당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들어오는 보육료는 보육서비

3) 2004년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④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스에 전부 쓰이지 않는다. 설치자의 개인수익률을 제외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낮은 보육료수입은 저임금의 보육노동자와 낮은 질의 급간식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이진 민간시설운영자들의 개인적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원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소규모 창업아이템처럼 여겨지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개인이 자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면서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이 점이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말해준다.

즉,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이거나 최소한 국공립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원장은 월급을 받고 일하며 따라서 그는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시설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보장받고자 한다.(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말자.) 국공립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며 설치, 운영자가 개인의 수익을 포기하고 다른 보육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인건비만 받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80%이상이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채워져 있는 한국의 보육상황은 이런 면에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결국 진정으로 보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공립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에 달려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영리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공보육시설(설치주체가 국가는 아니지만 자산(시설, 투자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적재산으로 내놓은 시설)도 중요한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

4. 여성부의 태도

보육업무를 이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모호하고 원칙을 알 수 없다. 분명 전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비용의 문제로만 한정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아동별 지원방식에 대한 여성부의 이상한 고집은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민간과 국공립-모두 아동들이 보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결국 방식은 국공립에만 적용되던 인건비 지원방식을 폐기하고 이용아동 개인에 대한 보육료지원으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인건비 지원으로의 통일은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 보육비용의 60%이상이 인건비이고(이는 보육서비스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보육이 아동과 보육교사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건비 지원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

가 없다.

또 자율화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여성부 스스로가 보육을 공적 서비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적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보육문제는 아동양육이라는 사회의 필수적인 재생산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며 따라서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더 좋은 물을 비싼 비용을 들여 사먹을 수는 있으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비용, 동일한 질의 물의 공급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별도로 사먹는 생수까지 정책적으로 고민하지는 않는다.(물론 기본적인 수질검사규정이야 만들겠지만)

공적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화니, 예외허용이니,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면 전환이니 하는 것들이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보육을 민간영역에,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여성부는 확실한 자기원칙, 보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국공립시설의 확대, 관리감독 시스템의 마련 등)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5. 보육의 질과 보육노동자

보육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 후 첫 번째 기대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 평가받지 못했던 보육노동(돌봄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적영역에서 비공식노동으로 제공되었던 돌봄노동(육아, 간병 등)은 모성, 헌신, 가족애 등 이데올로기의 포장을 통해 댓가없이 제공되는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돌봄노동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사회의 공식적 자리로 나온 후에도 보육노동자(99% 여성노동자)에 대한 전 사회적 착취를 지속하는데 기여해 왔다.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어느 부서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여성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년에 대한 우리의 평가이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보육노동자가 전체의 25%를 넘고 있고(하루 평균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0만원미만은 최저임금 위반이다.) 27.7%가 겨우 최저임금 수준으로(100만원미만) 월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미만이거나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노동자가 전체의 53%를 넘는다. 대부분이 별도의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 실태조사 결과는 보육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부는 보육노동자와 관련하여 자격증제도의 도입, 보수교육의 강화,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보육의 질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전문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조건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6. 여성부 보육노동자 정책의 문제

1) 인건비 지원 축소 - 보육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력 감소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문제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교육적·보호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개별적 목적 이외에 건강한 사회성원의 생산과 유지를 지원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육의 혜택은 아동을 둔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육을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한다.

보육이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보육의 핵심이 되는 보육노동이 공공노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보육노동은 공무원처럼 사회전체가 필요로 하기에 제공되는 노동인 것이다. 보육노동은 상품을 만들거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제공되는 노동이 아니라 그 사회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노동이다. 따라서 개별 가정에 대한 소득별 보육료지원과 더불어 보육노동에 대한 지원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성부는 2005년부터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여성부는 보육료지원대상 확대로 시설수입이 보장되면 결과적으로 보육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인건비 수준은 전적으로 개별 시설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보육료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며 시설전체수입의 확대가(이것도 사실 불분명하지

만) 보육노동자의 인건비 수준 향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나마 그동안 국공립시설이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수준을 통제하고 일정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인건비 지원의 축소(장기적 폐지)는 이것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보육료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정부가 보육시설의 공급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모든 시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적은 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보육노동자들의 인건비 수준은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즉, 원아모집정도나 시설장이 자기 몫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설사 정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지원이 없는 기준의 강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인건비 지원 축소(폐지)는 보육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퇴출, 또는 경력을 무시한 임금수준의 감수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보육의 질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보육노동이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 노동의 대가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들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개별 아동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의 보육비용(급간식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불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 할 수 있어야 한다(보육료차등지원은 유지) 인건비 직접 지원은 보육노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2) 계약직의 확대 -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보육의 불안정으로 나타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보육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계약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법 개정 후에 지침에 명시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많아진 것과 동시에 계약직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여성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기존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은 없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최근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5월호)에 게재한 근로계약서 양식은 여전히 계약제를 넣고 있는 등 실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여성부는 면담과정에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육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계약기간을 넣은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여성부가 진정으로 보육업무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소규모 시설에서 자행되는 일방적 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곧바로 보육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7.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늘어난 돈이 정말 필요한 자리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것의 결과이다.

부족한 국공립인프라를 깔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 과정을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때 보육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아직도 못 먹일 것을 먹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분노 어린 보도가 나오고, 보육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돈을 받으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면서까지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이 힘겨운 하루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 과연 둘째를 낳아야 할지 오늘도 고민하며 종종거리며 직장과 어린이집을 오고간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숨쉬고 뛰고 휴식할 공간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어른들의 결정에 매여 있다.

한번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토대가 기울었으면 토대부터, 기둥이 비틀려 있으면 기둥부터 다시 닦고 세우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영성한 토대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금박을 입힌다 해도 결국 무너질 뿐이다.

“비폭력 대화”를 소개합니다.

박근덕

2003년부터 비폭력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육교사들과 아동인권감수성 키우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말한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과의 대화의 어려움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이번 호에 아동교육 코너에서 소개하는 비폭력대화는 아이, 혹은 동료 성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글을 쓰며

이선주님의 원고청탁서를 읽으면서 보육교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기 표현이 서툰 어린이, 자기 맘대로 하려는 아이, 자기 내면의 어찌지 못하는 화를 느낄 때의 자책 등등... 함께 하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 느끼는 좌절감이 보육교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비슷하게 느끼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폭력대화”를 알려, 보다 많은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기업연구소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의 의사 소통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아들겠어요”, “너는 이해했니, 아니면 이야길 해!”,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모르겠으면, 회의 때 이야기 해야지!”, “담당자가 전체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 등등. 제가 동료들에게 뱉은 나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따로 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했으나, 항상 기대 이하의 성과에 “아냐! 기대가 너무 컸어, 기대를 반의 반으로 줄여야 돼”,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 등으로 되도 않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대화방식의 변화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서로간의 필요한 것을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해주어 유대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필

요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대화 방식과 다른 네 가지 요소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하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몇 줄의 파란색 줄로 하늘을 그려서 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니?", "네 시간이 따분하니?"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을 하면, "네가 몇 개의 파란색 선으로 그린 하늘 그림을 보니" 또는 "그리는 시간 5분 쯤 나머지 시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너를 보고"가 관찰이 됩니다. 비판이나 평가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느낌 (아이 느낌이 아닙니다)을 표현합니다. "나는 실망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슬프다"가 되겠죠. 자신이 느낀 그대로의 느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이 그 느낌을 가져온 '필요'입니다. 이 필요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필요(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배워서 더욱 힘듭니다. 제가 교육을 했던 한 분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데,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찾기 힘든 필요를 찾기 위해서는 그 만큼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성실한 어린이로 키우고 싶어서", "보다 너의 표현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나의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탁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음 그리는 시간에는 자리를 지켜주겠니" 등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네가 몇 개의 선으로 그린 하늘을 보니, 너의 표현력을 보고 키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실망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어린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어린이)은 나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단계로서, 많은 경우, 정확한 의사 전달 없이, "상식적인 인간이 아냐"라는 식으로 상대의 이해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상대의 말에 들어있는 느낌과 필요를 제대로 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구나"가 예가 되겠죠. 여기에 상대의 필요를 들어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덧붙여 "나는 네가 자신의 표현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비폭력 대화”를 소개합니다.

박근덕

2003년부터 비폭력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육교사들과 아동인권감수성 키우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말한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과의 대화의 어려움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이번 호에 아동교육 코너에서 소개하는 비폭력대화는 아이, 혹은 동료 성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글을 쓰며

이선주님의 원고청탁서를 읽으면서 보육교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기 표현이 서툰 어린이, 자기 맘대로 하려는 아이, 자기 내면의 어찌지 못하는 화를 느낄 때의 자책 등등... 함께 하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 느끼는 좌절감이 보육교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비슷하게 느끼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폭력대화”를 알려, 보다 많은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기업연구소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의 의사 소통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아들겠어요”, “너는 이해했니, 아니면 이야길 해!”,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모르겠으면, 회의 때 이야기 해야지!”, “담당자가 전체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 등등. 제가 동료들에게 받은 나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따로 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했으나, 항상 기대 이하의 성과에 “아냐! 기대가 너무 컸어, 기대를 반의 반으로 줄여야 돼”, “미피의 법칙이 있잖아” 등으로 되도 않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대화방식의 변화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서로간의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는 기쁨으로 해주어 유대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필

요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대화 방식과 다른 네 가지 요소는 '관찰', '느낌', '필요', '부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하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몇 줄의 파란색 줄로 하늘을 그려서 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그렸니?", "내 시간이 다분하니?"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을 하면, "네가 몇 개의 파란색 선으로 그린 하늘 그림을 보니" 또는 "그리는 시간 5분 땀 나머지 시간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너를 보고"가 관찰이 됩니다. 비판이나 평가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느낌 (아이 느낌이 아닙니다)을 표현합니다. "나는 실망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슬프다"가 되겠죠. 자신이 느낀 그대로의 느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이 그 느낌을 가져온 '필요'입니다. 이 필요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필요(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배워서 더욱 힘듭니다. 제가 교육을 했던 한 분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데,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찾기 힘든 필요를 찾기 위해서는 그 만큼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성실한 어린이로 키우고 싶어서", "보다 너의 표현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나의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탁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음 그리는 시간에는 자리를 지켜주겠니" 등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네가 몇 개의 선으로 그린 하늘을 보니, 너의 표현력을 보고 키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실망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어린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어린이)은 나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단계로서, 많은 경우, 정확한 의사 전달 없이, "상식적인 인간이 아냐"라는 식으로 상대의 이해부족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상대의 말에 들어있는 느낌과 필요를 제대로 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구나"가 예가 되겠죠. 여기에 상대의 필요를 들어주면서 자신의 필요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덧붙여 "나는 네가 자신의 표현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새로운 대화

기존의 대화방식(폭력대화)은 역사적으로는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가족과 교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퍼져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대화방식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린만큼 아직 이러한 언어방식에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희망적입니다. 실제, 비폭력대화를 가르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 어릴수록 더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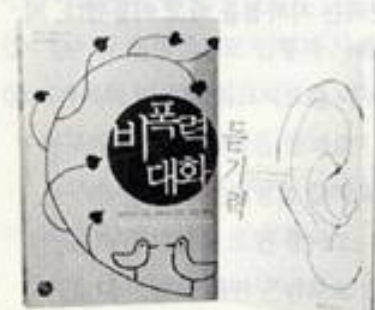
틱낫한 스님의 수행방법은 "자신의 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비폭력대화는 그런 면에서 불교와 닮아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한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어느 정도 나의 버릇이나 무의식에서 나왔는가를 반추해봅시다. 자신의 말 대부분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폭력대화"는 '자신의 말을 의식하면서 하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도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의식하면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왜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상대방의 반응에도 정확히 반응하게 됩니다.

어수선하게

비폭력대화를 잘 소개하고 싶으나 미진했을 수 있습니다. 미진한 글이나마 여러분이 "비폭력대화"(로젠버그박사 저 바오출판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에게 이 글의 내용에 대한 궁금함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글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겠습니다. (hanmaum@krnvc.org)

<책소개>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인적 방식의 대화법이다. 이 책은 NVC의 개념에서부터 모델과 소통원리에 이르기까지 NVC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존대 말과 반 말”

이경녀 · 회원

이경녀선생님은 씹씹이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씹씹이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어린이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든 이경녀선생님의 문제의식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존대말을 써야 한다거나, 반말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글이 아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눈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씹씹이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을 이모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글에 나오는 아이들 이름은 가명입니다. 큰모반은 5~7세 통합반이고, 푸른반은 4세반입니다.

사례1>>

인형(여, 7세) : “애들아! 이모가 우리한테 존대말을 쓴다. 이상하지?”

이모: ?.....

연후(여, 7세) : “이모! 동혁(남, 5세)이가 이모한테 반말 써요.”

이모: “그러면 안돼? 나도 반말하는데?”

연후(여, 7세): “이모는 되지만 동혁(가명, 남, 5세)이는 어려서 안돼요”

이모: ?.....

사례2>>

4월 13일 큰모와 푸른반 5살들이랑 농장 나들이를 가는데 큰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지하철 안에서 소진(여, 7세)이가 머리가 긴 낯선 청년에게,

소진: “남자야? 여자야?”

청년: 남자다.

아이들: E\$&~@\$\$\$\$(모두 반말)

-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언어 사용에 있어 존대말과 반말이 있다. 그리고 이는 유교사상과 얽혀서 때로는 ‘사람이 예의가 바르다’ 또는 ‘그 사람 무례하네’ 라는 평가를 받게 하곤 한다.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두고 이런 평가를 잘 내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싸움의 끝은 그 시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디다 데고 반말이야? 너는 왜 먼저 반말하는데?’ 라며 결국은 반말로 인해 감정싸움이 된다.

어떤 어린이집들은 아이와 어른이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 어떤 어린이집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존대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씹씹이에서는 그동안 아이나 어른이나 존대말과 반말 사용을 알아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첫번째 사례에서 보여지듯 씹씹이 가족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아이들은 이모들이 존대말 사용에 대해 강요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하거나, 사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도 가정교육과 사회적 통념으로 존대말과 반말 사용에 대해 기준을 두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낯선 이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기의 불편함을 느끼며(교사가), 의식적인 존대말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사가 있었음을 교사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씹씹이에서는 아이들이 존대말과 반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고 존대말과 반말 사용에 있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 아이들과의 활동

- ① 손가락 인형극으로 인형과 사례 1의 연후의 대화를 재현함.
- ② 4가지의 질문의 워크시트를 나눠준 후 아이들의 생각을 쓰거나 그리게 함
 - 누구에게, 언제 반말을 쓸까요?
 - 누구에게, 언제 존대말을 쓸까요?
 - 이럴 때 존대말을 쓰면 좋아요.
 - 이럴 때 반말을 하면 곤란해요

③ 역할극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이들이 친근한 사람과 낯선 사람의 사진을 준비하여 먼저 말을 걸거나 걸게 하여 대화하도록 함

④ 반말과 존대말 사용에 대해 기준을 함께 정함.

-활동 결과

1) 존대말과 반말은?

- 존대말은 '요' 자가 들어가요
- 반말은 '요' 자가 없어요.
- 반말은 '다' 로 끝나요 (고맙습니다는 반말이야? ?????)

2) 4가지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① 누구에게, 언제 반말을 쓸까요?

- 친구에게/ 엄마, 이모에게/ 동생에게

왜?

→ 친구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몰라요, 실수로, 오빠가 나한테 반말하니까요, 나는 어른이 되어 가고 엄마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요(엄마가 할머니한테 반말해? 네), 자주 해요/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이니까

② 누구에게, 언제 존대말을 쓸까요?

- 엄마, 아빠, 이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몰라요

왜?

→ 어른이니까, 엄마가 기분 좋아지라고, 이모 목이 안 아파지라고, 화 안내고 좋아지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이모 친구들 목 안 아프고 기분 좋아지라고, 크게 안 말하려고, 힘내라고

③ 이럴 때 존대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 씹씩이 갈 때 이모에게
-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타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엄마 아빠에게
- 엄마가 설거지 할 때 뒤에서 “사랑해요”
- 씹씩이 가서 이모 만나 얘기 할 때

- 이모한테 기분 좋아지라고

- 엄마가 나한테 존대말 쓰니까요

- 내가 집에 갈 때 내가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이모도 “안녕히 가세요”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 현서가 “언니~”하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 씹씩이 올 때 엄마랑 같이 존대말 하면.....

- 몰라요

④ 이럴 때 반말 하면 곤란해요.

- 몰라요 (6명)

- 모르는 아이가 나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빠져요.

- 내가 슈퍼 가면서 “갔다 올게” 했더니 엄마가 화났어요.

- 5살이 7살한테 “야!” 했더니 머리가 핑 돌아요.

- 이모한테 메롱 했더니 이모가 화내요

- 언니한테 반말하면 곤란해요

- 이모한테 반말하면 곤란해요

- 언니하고 싸울 때 반말하면 곤란해요

⑤ 존대말과 반말 어떻게 사용할까?

앞서의 워크시트를 벽에 붙여 두고,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존대말을 들었을 때와 반말을 들었을 때, 또 누구에게 듣는가에 따라 느낌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존대말과 반말 사용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넘어갔다.

이모: “그럼 누구한테 반말 하지?”

아이들: “아는 사람”

이모: “아는 사람은 다?”

아이들: “서로 알고 친한 사람”

이모: “누구한테 존대말을 쓸까?”

아이들: “잘 모르는 사람”

3) 역할 놀이

여러 가지의 사진 - 씹씩이의 아빠들, 엄마들, 아이들 사진 등 아는 얼굴과 모르는 남녀 어

른과 아이들 사진을 제시 후 친한 사람에게는 반말과 존대말을 쓸 수 있음을, 모르는 이에
게는 존대말을 써서 상대를 존중해야 함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가 나에게 반말을 써서 불쾌할 경우 "존대말로 말씀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
기로 하였다.

-. 정리하며

아이들은 반말과 존대말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되어 있었으나 때로는 "아"라든지 "바
보, 멍청이" 등의 폭언과 헛갈리기도 했다. 그리고 존대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4가지의 워크시트에서도 아이들의 그러한 생각
은 반영되어 있었으며 역할극에서 어른이 강한 어조의 반말로 말하면 아이들 역시 반말이거
나 "말 안해!", "안 가르쳐 줄 거야" 등의 강한 반말로 대응했으며 존대말로 말을 하면 부드러
운 어조의 존대말로 대응했다. 다만, 이전에 진행된 활동이 투영되어 이 활동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번 활동은 어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존대를 해야 하거나 반말을 들어야 하는 부당함을 벗
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존대말을 사용하며 서로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반말을 사용함에 대해 즉, '존대와 반말' 사용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일방적인 사회적 인식을
깨고 인권의 시각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아이 개개인의 가치관 속에서 이번 활동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최소한 스스
로가 어리기 때문에 존대해야 하고 반말을 사용하면 나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활동을 하며 존대와 반말에 대해 우리 나름의 인권적 기준을 세운 어제 오후 평소 이모에게
존대하던 아이들이 어설픈 반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모방에 들어와 책을 봐도 되느냐
고 정중하게 묻기도 하였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번 활동을 통해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새삼 인식할 수 있
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나 나름의 사용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존대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과도한 막말(?)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이들에게 훈계할 경우에는 더욱.

아동인권 워크숍에 다녀와서

박효정 · 디딤어린이집 교사

2박 3일간의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던 워크숍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듣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무지로 인해 아이들에
게 상처를 주었음을 알고 반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중에서
OHP 필름을 통해 보았던 여러 말들이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을 사람들에 모두들
비슷한 말을 모두들 공감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곳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히지는 글을 보면서 걸으려는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이들은 어리니깐이라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예로 나와 있는 말들을 빼면 한 말이 없을 정도라고, 순간 그렇게 행동했
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하루 일과에 바쁘게 쫓기는 선생님, 혼자서는 힘겨운 아이들 수,
점심식사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생활, 아파도 마음 놓고 아플 수 없는 상황 등이 선생님의 입
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들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아이들의 인권만큼 선생님의 인권
도 소중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더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마지막에 만들었던 실천지침의 내용.. 책상에 앉아서 급하게 만든 실
천지침이 아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과 실천해야하는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동 중에 아쉬웠었던 것은 가기 전에 신청했었던 분반강연에 대한 기대가 컸었
는데, 조금은 아쉬웠다. '놀 권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놀 권리에 대한 토의가 아닌 역사적인 의미와 같은 이론적인 것
이 강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
의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강연을 듣고 싶다.

사실 2박 3일간의 일정을 전혀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갔었습니
다. 그리고 제가 워크숍에 처음 참가하였기에 서먹함도 있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나버렸습니다.

2박 3일 동안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가 손님이야?

평동어린이집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가는 것인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하루하루가 워낙 정신없다 보니 그런 것인지 우리네 아이들 원고를 써서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다시 원고 재촉을 받았다. 지난 번 원고를 보내면서 다음에는 좀 여유롭게 글을 써 보리라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은 벌써 내 머릿속 어디에도 남아 있지가 않다. 아이들 말대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번 호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평동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론이 아닌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것이라 전체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경험을 나눈다는 의미로 정리해 보았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언어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설프지만 열심히 자기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우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라는 어른과 함께 지내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개별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교사 또한 20여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다보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로서 이 부분은 늘 딜레마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난, 그 최선의 방법 중 하나를 기록으로 삼았다. 녹음기가 있어서 매 상황을 녹음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시 들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손목을 휘날리며 그 때 그 때 메모하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 이야기를 귀기우려 듣고 기록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면 '아하! 하고 그 상황에서는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다.

※111 비손님

교사: 난, 비오는 게 좋아. 창문 좀 열어봐

수: 여기, 비가 들어오는데요?

혁: 비가 손님이야, 들어오게?

※112 우리 아빠 이름은~

호: 선생님, 누구 이름 써요?

교사: 그 그림 누가 그렸는데?

호: 제가요

교사: 그럼, 윤호 이름 쓰는 거야. 그런데 윤호야, 너 아빠 이름 쓸 수 있니?

호: 아니요

경: 우리 아빠 이름은 우리가 이대균, 이대경 이니까 이름에 이대는 들어가

※113 풍선이 감기 걸릴라

교사: (종이탈을 만들고 있었다) 풍선을 풀에 묶어서 후 신문지를 붙이세요.

은: 빨리 안하면 풀이 차가워 풍선이 감기 걸릴지도 몰라

교사: 어, 풍선이 터졌네

영: 근데요, 풍선이 에벌레처럼 되었어요. 오물오물 길죽하네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난 개인적으로 '듣기'를 우선 순위로 꼽고 싶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생기는 이상한 일들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일까? 집단생활을 하다보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진다. 아이들도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목청을 돋운다. 여기엔 교사인 나의 목소리도 한 몫 한다.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의사소통의 기본이 바로 이것 아닌가?

※114 詩(시)-씨-꿀

꽃에 관련된 이야기, 전설, 詩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교사: 와, 꽃에는 詩(시)가 굉장히 많구나

민: 씨가 아니에요, 꿀이 많아요.

•민에게는 시가 씨로 들렸나 보다

*단오! 관호?

교사: 우리 다음 주에 '단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단오'에 대해 알아요?

아이들: 네, 알아요, 박관호요

*아이들에게는 '단오'가 '관호'로 들렸나 보다

노랫말이 아름다운 '햇볕' 노래를 지난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점심 먹고 정리가 일주 끝난 시간에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들은 모이라고 불렀더니 6-7명 되는 아이들이 '뭔대요? 뭔대요?'를 연발하며 모여들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이지만 조금 진지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악보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 (몇몇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다) 그리고는 노래 테잎을 틀었다. 째름이 틀어주었던 노래테잎이라 아이들이 '들어봤는데' 하며 흥얼거렸다. 두어 번은 주의 깊게 들었고, 먼저 내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노랫말을 아이들에게 불러주며 함께 노래를 익혔다. 이 날 이후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자며 따라 다닌다. 이 노래 이외에도 몇 곡의 노래를 이런 방식으로 배웠다. 다른 때와 다른 건 아이들 개인에게 악보를 주었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이 악보를 어쩌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나도 놀랐다. 노래를 부르다 어디쯤인지 악보를 찾아 주었다. 시간이 날 때는 악보에 쓰여진 노랫말을 종이에 따라 적었다. 물론 한 번 써 보겠니? 하고 교사가 권유를 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자의적인가?) 우리도 음악회 하자는 아이들에게 그럼 우리 복사한 악보는 자꾸 없어지고 찢어지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제안해 보았다. 아이들이 좋단다. 앞으로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구해 노래책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쓰기 활동이 뭐 별 것인가? 이런 놀이가 곧 아이들에게 쓰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접 써 보는 과정을 통해 글자의 형태와 의미를 알아나가는 것 아닌가? 읽기도 마찬가지이다. 악보를 따라가며 눈으로 보다 보니 대충 이 글자가 '햇볕' 이구나, '나뭇잎' 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전체 아이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는 활동은 아니지만 노래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과 즐겁게 한 읽기, 쓰기 활동이었다.

얼마 전부터 본격적인 바느질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광목천으로 시작했다가 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모시로 천을 바꾸었다. 천에 연필로 줄을 그어주고 선 따라 바느질하기를 했는데 평소 활동량이 많았던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 며칠 전부터는 얇은 광목천을 소목으로 염색하여 도시락 가방 만들기를 하고 있다. 바느질한 모양을 보면 아주 촘촘하게 바느질하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은 느슨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다양하다. 바느질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아이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눈과 손의 정확한 협응, 소근육 발달,

힘조절 등 쓰기 활동에 필요한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어휘를 경험할 수 있다. '촘촘하게' '한 땀씩' 등등. 앞으로도 꾸준히 바느질하기를 할 계획인데 올 연말쯤 아이들의 쓰기 활동과 바느질 활동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인데 글씨 잘 될까 모르겠다.

처음 이 글을 쓰며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6.7세 아이들의 문자교육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이곳을 통해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 무척 아쉽다. 사실 매년 평등에서 글을 쓰자니 피가 나서 더 이런 생각이 드는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개인의 경험을 글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다음 원고 쓸 때는 시간 탓 안하고 정말 잘 쓰고 싶다. 정말로!





비 오는 날, 무얼 할까요?

이지영 ·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아저씨 우산(사노 요코 글·그림/ 박상희 옮김/비룡소)

비오는 날의 소풍(가브리엘 뱅상 글·그림/ 김미선 옮김/ 시공주니어)

비가 오는 날에...(이혜리 지음/ 정병규 꾸림/ 보림)

기한을 넘긴 원고를 쓰는 지금, 하늘은 무겁다. 6월 말과 7월 초가 되면 항상 찾아오는 장마가 시작되어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 붓는 빗줄기가 무섭기까지 하다. 하루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수해가 난 곳이 있다니 걱정이다.

비가 오면 아이들은 무얼 하고 놀까? 집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지루하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비와 어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즐거운 놀이도 곁들이면 어떨까?

비가 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아저씨 우산(사노 요코 글·그림/ 박상희 옮김/비룡소)>에서 한 아저씨는 “퐁포로롱, 퐁포로롱”, “핏짱짱, 핏짱짱” 이라고 노래한다. 이 아저씨가 처음부터 비가 올 때 노래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검고 가늘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팡이와 비슷한, 아주 멋진 우산이 아까워 절대로 펴지 않아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외출할 때마다 우산을 들고 다녔지만, 비가와도 산을 펴지 않았다. 우산이 젖으니까, 비가 조금 오면 비를 맞고 걸었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비가 그칠 때까지 처마 밑에서 기다리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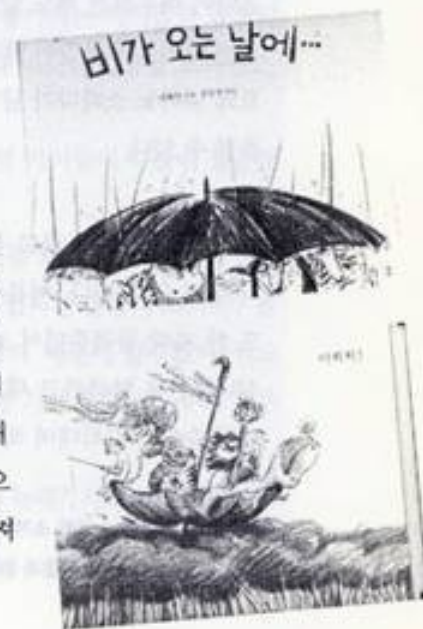


우산을 확 싸안고 뛰었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우산 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거나 아예 외출을 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저씨에게 우산을 활짝 펴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 작은 아이를 만나게 된다. 이 아이가 아저씨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한다. 물론 아저씨는 거절하고, 그 아이의 친구가 대신 우산을 씌워주며 노래는 부른다. “비가 오면 퐁포로롱, 비가 오면 핏짱짱” 이라고, 아저씨는 정말로 궁금했다. 그게 사실인가하고, 그래서 우산을 활짝 폈다. 빗속을 걸어오는 아저씨는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푸른색 테두리선이 인상적인 그림은 비 오는 날의 청명함을 느끼게 한다. 검은 색 멋진 우산, 검은 외투, 검은 모자와 구두의 아주 멋진 아저씨가 등장하는 걸표지와 우산을 들고 뒷집을 진 모습의 뒷표지가 이야기 속으로 우리 손을 이끈다. 특히 처음으로 우산을 활짝 펼치는 장면에서는 빗소리가 어떨지 설레어 하는 아저씨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비가 오면 갇혀있게 되는 아이들과 우산을 펼쳐들고 함께 길에 나서 빗소리를 들어오면 어떨까?

비 오는 날 동물들은 무얼 할까? <비가 오는 날(이혜리 지음/ 정병규 꾸림/ 보림)>에서는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해 지루해 하는 아이는 비가 오면 다른 동물 친구들은 무얼 할까 하고 환상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치타는 무얼 할까?’ 하고 물으면 ‘우산이 날아갈까 봐 꼭 붙잡고 있지’ 라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각 장마다 아이가 상상하는 빗줄기가 그림으로 보여지고, 다음 장에는 치타, 사자, 나비, 티라노사우루스, 호랑이, 용, 아빠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 문답으로 진행되는 구성이어서 아이들은 주인공과 같이 상상하면서 사자는 무얼 할까, 나비는 무얼 할까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질문에 답하는 기분으로 함께 상상해 보고, 더불어 다른 동물들은 무얼 할지 이야기해보는 즐거움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비 오는 날 소풍을 가면 어떨까? <비오는 날의 소풍(가브리엘 뱅상 글·그림/ 김미선 옮김/ 시공주니어)>는 소풍을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의 들뜬 마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리는 비에 실망하는 모습과 이를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의 모습이 독자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행복한 이야기이다.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셀레스틴느는 작은 여자 생쥐이고, 어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에르네스트는 곰 아저씨이다. 생쥐와 곰은 몸집이 가장 작은 동물과 가장 큰 동물로 우선 생김새에서 대비가 되고, 발빠른 생쥐의 특징이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곰의 느릿하고 굵은 모습이 어른의 점잖은 모습을 그려져 대조되는 캐릭터를 그리고 있다.





화려한 색상을 이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갈색이 주를 이루는 수채화로 그려진 차분한 분위기의 그림에서는 단 한번에 명쾌하게 내려간 선을 볼 수 없다. 인물과 사물을 표현하는 가느다랗고 짧은 선들이 불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도 진한 색이 아니다. 배경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거나 아주 옅은 색으로 처리하면서 주인공들의 외곽부분에도 채색이나 선이 닿지 않게 희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주인공들이 위치한 부분이 밝게 빛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맑고 가벼운 느낌을 전해준다. 또 묘사나 서술 없이 대화 글로만 진행되며, 특히 “따옴표”가 없는 문장은 하나도 없다. 글의 길이도 짧고 어찌 보면 앞 뒤 대목을 툭 찢아 먹은 듯하다. 설명은 그림속 주인공들의 움직임에 존재한다. 장식적인 배경처리가 없는 그림처럼 글도 간결하여 조화를 이룬다.

도시락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는 내리는 비 때문에 다시 가방을 푼 경험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무척 실망하는데 그렇다고 빗속에 길을 나설 수는 없고 어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때 이 책 속의 에르네스트 아저씨처럼 직접 길로 나설 수는 없겠지만 소풍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실내에서 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동물원에 가기로 했다면 친구들과 교사가 번갈아 가며 동물과 구경하는 사람 역할을 해보고, 수건돌리기와 같은 게임도 방안에서 해보는 것이다. 산으로 가기로 했다면 의자와 담요들을 이용하여 산처럼 꾸며보고 모의 탐험을 하는 것이다. 보물찾기를 해보면 얼마나 신날까? 그리고는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먹고 돌아오는 일까지 한다면 그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듯하다. 덧붙여 비가 오는 날 들으면 좋은 음악이 어우러진 책도 있다. <노란 우산 (류재수 그림/ 신동일 작곡)>은 비 오는 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풍경이 담긴 조형미가 아주 뛰어난 그림책이다. 같이 들어있는 CD에는 테마동요와 피아노 소타나가 담겨 있어 책과 감상해도 좋고, 음악만 들어도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

비 오는 날 무얼 하고 싶냐고 물으면 나는 부침개를 가득해서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며 책이나 실컷 읽고 싶다. 여름에 비가 오면 전우 직녀가 만나서 그러냐고 묻는 아이에게 옛이야기도 한 자락 들려주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아이들이 실내공간을 탐색하고 새로운 놀이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의 지루함을 호소하기 전까지 어디에 숨어서 킁킁대며 책이나 보고 싶다.

좋은 그림책 소개에 소개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소개된 그림책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은 다음호에 게재해 드립니다.



토끼한번 잡아먹어 본 적 없는 늑대, 롤루이야기

지정희 · 회원

이 글은 지난 호 [좋은 그림책 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그림책 롤루(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글·그림/ 최윤정 옮김/ 문진닷컴)를 자람터 아이들과 함께 읽고 지정희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18개월에서 7세까지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읽으며 놀았구요. 그림은 6, 7세 아이들 공동작품입니다. 자람터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14년째 교사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제 막 새집으로 이시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토끼라고는 한번도 잡아먹어본 적이 없는 늑대 애기 들어볼래?”

롤루와 우리아이들의 첫만남은 시작됐다.

색종이를 싹둑싹둑 오려서 붙여놓은 듯한 강한 원색의 그림과 재미나고 간결한 줄거리에 아이들의 시선이 그대로 고정되었다.

그림책을 펴기가 바쁘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내꺼야” “아니야! 이건 내꺼야!” 하면서 그림책 한 장을 넘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을 요구하게 만들던 영아반(36개월 미만) 아이들도,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은채 집중했다. 새책을 처음으로 읽을때는 워낙 흥미도가 높아서 집중하지만, 두서너번 읽다보면 큰반 아이들중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만 끝까지 남아서 듣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롤루는 보름동안 읽는 내내 처음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줬고, 특히 영아반 아이들이 끝까지 앉아서 들었다.

소그룹으로 서너명씩 앉아서 읽을때나, 열다섯명정도의 혼합연령 아이들이 다같이 들을때도 집중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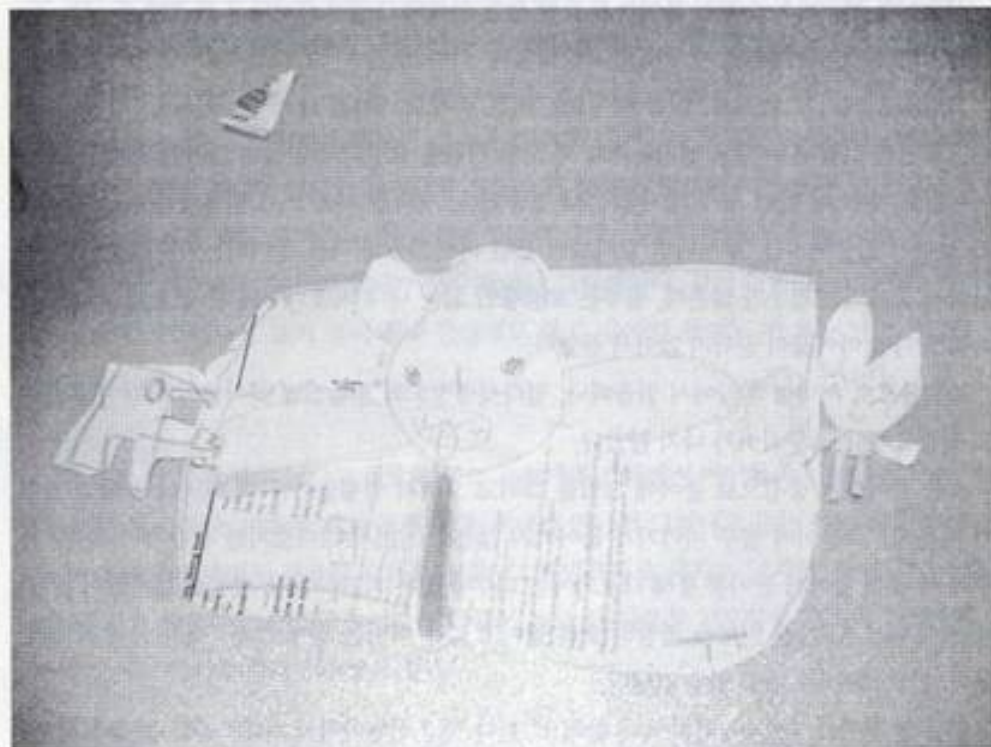
요즘 큰아이들 중심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오려서 인형놀이를 꽤 재미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놀이에 롤루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 롤루에 푹 젖어 들어서 놀이를 통해 나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할수없이 (원고를 써야 하므로) 다른 인형을 열심히 오려 붙이고 있는 아이들 옆에 가서 “애들아! 우리 롤루 놀이 한번 해볼래?” 라고 말을 건넸다.

일곱 살 형아가 “나는 아저씨 늑대 할래요” 한다 “응? 어떤아저씨 늑대?” 라고 물었더니, “너무 서두르다가 바위에 쿵 부딪혀서 죽은 아저씨 늑대요” 라고 한다.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응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아저씨 늑대가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나 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나도요, 나도요” 한다 그러자 일곱 살 형아가 “아! 아저씨 늑대만 있으면, 재미없다” 라고하니까

“그럼……나는 톰이요”한다. 6·7세 아이들이 톰이랑 아저씨 늑대랑, 아저씨 늑대가 부딪힌 바위랑, 수레를 오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아이가 “이건 톰루예요” 하면서 아기늑대를 그려서 갖고 왔다. 인형을 모아서 아저씨늑대를 수레에 태우고 수레앞뒤로 톰루와 톰을 세우고는 방을 두 세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거실에 까지 나가서 아저씨 늑대산에 물고 들어오는 걸로 짧은 톰루 놀이는 끝이났다.

보름동안 톰루를 읽으면서 줄거리에 몰여있는 유-머스러움에 웃고, 아저씨 늑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아이들의 뜻밖의 반응에 더크게 웃었다. 자! 이제 모두 다같이 톰루의 매력속으로 푹 빠져 봅시다.



늑대아저씨를 수레에 싣고 물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어린이 안전 가정연계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고영미 정리·회원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가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실습니다.

본 보육시설(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은 2003~2004년 산업안전공단 안전시범 학교로 지정되어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

2단계: [안전을 생활화 하자]

3단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라는

실천과제를 정하고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의 기본은 [가정과 연계한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지킬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는 가정과 연계했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에 안전 시범학교 지정기간동안 어린이집과 각 가정, 주변 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시설 점검을 해주시고 (매달 첫주 토요일 / 오전9시부터 11시), 안전사고가 있던 장소나 시설물은 보수하거나 교체되었으며, 교사들은 놀이나 교육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메뉴얼을 만들어 항상 실천하고 확인 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더불어,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창의성 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일정

9월-10월 교통안전

소주제	가정연계 프로그램	활동방법 및 제시자료
보행시 안전	N.I.E활동-교통사고 무서워요	활동지
	부모안전교육칼럼-안전한 보행 7가지 약속	가정통신문
	언어전달-보행안전수칙3단계(선다, 본다, 건넌다)	언어전달장
	부모안전교육칼럼-차조심! 길조심!	가정통신문
	미술-신호등 만들기	활동지
바퀴달린 놀이 기구의 안전	활동지-차길에서 놀지 않기	활동지
	행사-부모님과 함께하는 안전참여수업	안전장구 착용하기게임
	활동지-자전거 안전수칙	활동지
	언어전달-안전장구 그리기	언어전달장
	부모안전교육칼럼-안전띠가 왜 중요한가?	가정통신문

11월-12월 화재안전

소주제	가정연계 프로그램	활동방법 및 제시자료
화재 위험인 안전	활동지-불에 대한 경험 나누기	활동지
	부모안전교육칼럼-성냥이나ライター등의 안전	가정통신문
	N.I.E활동-안전신문 만들기	활동지
화상 안전	부모교육-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소방서지원 (화재원인과 대피법)
전기 안전	활동지-전기기구를 안전하게	활동지
	가정협조-콘센트에 안전마개하기	가정통신문
소방 대피 훈련	활동지-우리집 비상대피도 그리기	활동지
	활동지-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활동지
	부모안전교육칼럼-자녀의 옷에 불이 붙었을때	가정통신문
	미술-불조심 포스터 만들기	활동방법 설명

1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소주제	가정연계 프로그램	활동방법 및 제시자료
승강기 안전	언어전달-승강기를 혼자 타지 않아요	언어전달장
	추천 비디오-내 몸은 보물이예요	가정통신문
에스컬레이터 안전	활동지-앗, 위험해!	활동지
공공 장소 안전	활동지-공공기관에서 지켜야할 규칙	활동지
	활동지-비상 연락 메모판	활동지 (길을 잃었을때의 안전)

주제	교통안전
소주제	보행시 안전
목표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조심해서 다녀야 함을 알고, 우리 주변에 위험 장소 (차길, 골목길) 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한다.

▶ 가정연계 프로그램

- * N.I.E활동- 교통사고 무서워요
- * 부모안전교육칼럼 - 안전한 보행 7가지 약속
- * 언어전달- 보행안전수칙3단계 (선다, 본다, 건넌다)
- * 부모안전교육칼럼- 차조심! 길조심!
- * 미술 - 신호등 만들기

주제	교통안전
소주제	바퀴 달린 것의 안전
목표	바퀴 달린 놀이감에 대한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자동차? 자전거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취 시킨다.

▶ 가정연계 프로그램

- * 활동지- 찾길에서 놀지 않기
- * 행사- 부모님과 함께하는 안전참여수업
- * 활동지-자전거 안전수칙
- * 언어전달-안전장구 그리기
- * 부모안전교육칼럼- 안전띠가 왜 중요한가?

주제	화재 안전
소주제	화재 위험원 안전/ 화상 안전/ 전기 안전
목표	열, 화학약품, 전기 등 실생활에서의 화재 원인을 알고, 예방 할 수 있다.

▶ 가정연계 프로그램

- * 활동지- 불에 대한 경험 나누기
- * 부모안전교육칼럼- 성냥이나 라이터등의 안전
- * N.I.E활동- 안전신문 만들기
- * 부모교육-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 * 활동지-전기기구를 안전하게
- * 가정협조-콘센트에 안전마개하기

주제	화재 안전
소주제	소방 대비 훈련
목표	불이 났을 때의 대처방안을 알고,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연계 프로그램

- * 활동지- 우리집 비상대피도 그리기
- * 활동지-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 * 부모안전교육칼럼- 자녀의 옷에 불이 붙었을때
- * 미술- 불조심 포스터 만들기

주제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
소주제	승강기 안전/ 에스컬레이터 안전/ 공공 장소 안전
목표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을 알고,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연계 프로그램

- * 언어전달- 승강기를 혼자 타지 않아요
- * 추천 비디오- 내 몸은 보물이예요
- * 활동지- 앓, 위험해
- * 활동지- 공공기관에서 지켜야할 규칙
- * 활동지- 비상연락 메모판

참고 1 부모안전교육칼럼 - 안전한 보행 7가지 약속



1. (1) 안전한 보행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부모님께

우리나라 아동상해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를 위해 안전한 보행법을 철저히 교육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을 5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들이 안전한 보행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녀와 함께 보행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안전 보행을 위한 7가지 약속 ※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조항 - 제11조 1항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아가 길거리와 골목길을 다닐 때는 항상 부모님과 동행해야만 안전합니다.
2. 길을 건널 때에는 '보도경계석'에 멈추고(stop),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look), 길을 건너는(go) 3원칙을 자녀에게 꼭 알려줍니다.
3.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도 차가 멈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건너도록 지도합니다.
4. 자녀에게 위험한 자투리길이 아닌 안전한 등원길을 알려줍니다.
5. 자녀에게 '빨리 빨리'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6.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7. 자녀의 교통안전, 바로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는데서 시작됩니다.

○○ 어린이집

참고 2 신호등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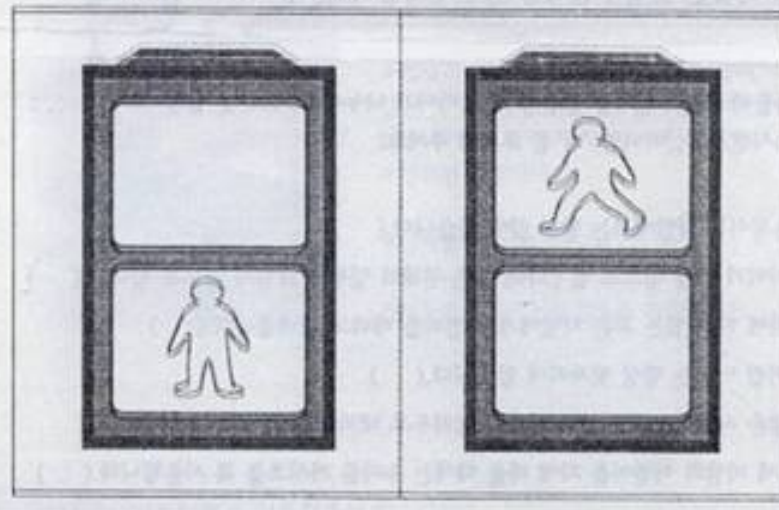
※ 부모님과 함께해요 ※

반 이름

신호등을 만들어요

- 준비물 : 두꺼운 종이, 물, 가위, 크레파스, 나무젓가락, 스키타이프
- 만드는 방법 : 1. 신호등을 세로로 적절히 오려 보세요.
2. 두꺼운 종이에 붙여 주세요.
3. 점선을 따라 밖으로 절단 후 그 사이에 나무젓가락을 끼워 붙여 주세요.
4. 예쁜 신호등이 되었어요.

지르는 선 걸는 선



참고 3 부모안전교육칼럼- 안전띠가 왜 중요한가



7. (1) 안전띠가 왜 중요할까요?

학부모님께

우리나라의 아동상해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승용차 이용시 부모님의 가정은 안전한 승객인지 아래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며,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교통수단이용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다음은 교통수단이용 안전수칙입니다. ※

가족들과 교통수단이용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잘 실천하고
있으시면 'O', 아니면 'X'를 표시해 주세요.

1. 움직이는 차안에서는 항상 앉아 있습니다.()
2. 아이가 차창 밖으로 팔·다리 같은 신체 일부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알려줍니다.()
4. 어린 아이는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5. 짧은 시간이라도 차안에 자녀만 남겨두고 내리지 않습니다.()
6.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꼭 사용합니다.()

※ 모두를 다 실천하고 있다면 귀덕은 안전가족입니다.

※ 1~2개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주세요.

※ 3~4개를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어린이집

참고 4 부모안전교육칼럼- 성냥이나ライター 등의 안전

가정통신문

부모님께

성냥과 라이터는 자녀들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많은 어린이들이 성냥이나 라이터 또는 불꽃 싹을 가지고 놀다가 화상을 입거나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냥과 라이터는 자녀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즉, 잠겨진 캐비닛
이나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 담배를 피운 후, 성냥과 라이터를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서
자녀들이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 성냥과 라이터는 만지지 않는다.
- 주위에서 성냥과 라이터를 발견하면 즉시 어른에게 알린다.

참고 5 활동지-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 최준우



다리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안마요



라디오가 작동하는데 몸을 뿌리지 안마요



선풍기에 손 넣으면 안마요

다리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안마요
라디오가 작동하는데 몸을 뿌리지 안마요
선풍기에 손 넣으면 안마요

참고 6 부모안전교육컬럼- 자녀의 옷에 불이 붙었을때



6. (1) 자녀의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멈추고,
일드린 후 뒤궁에서 끄게 하세요.

학부모님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으면 당황해서 뛰거나 몸을 흔들게 됩니다.
또는 옷을 벗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벗으려다 더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안전한 행동을 가르
쳐 주십시오.



첫째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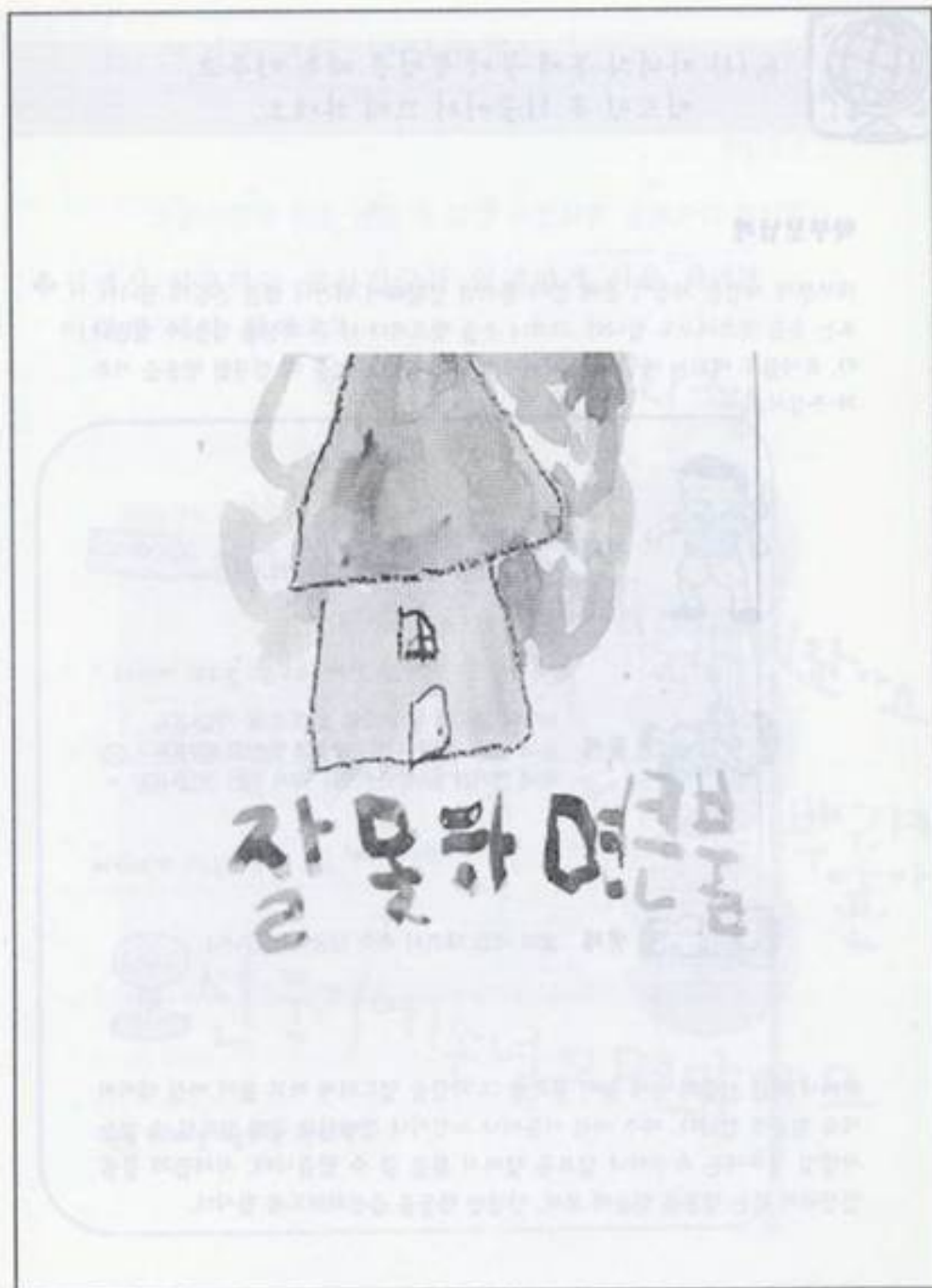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립니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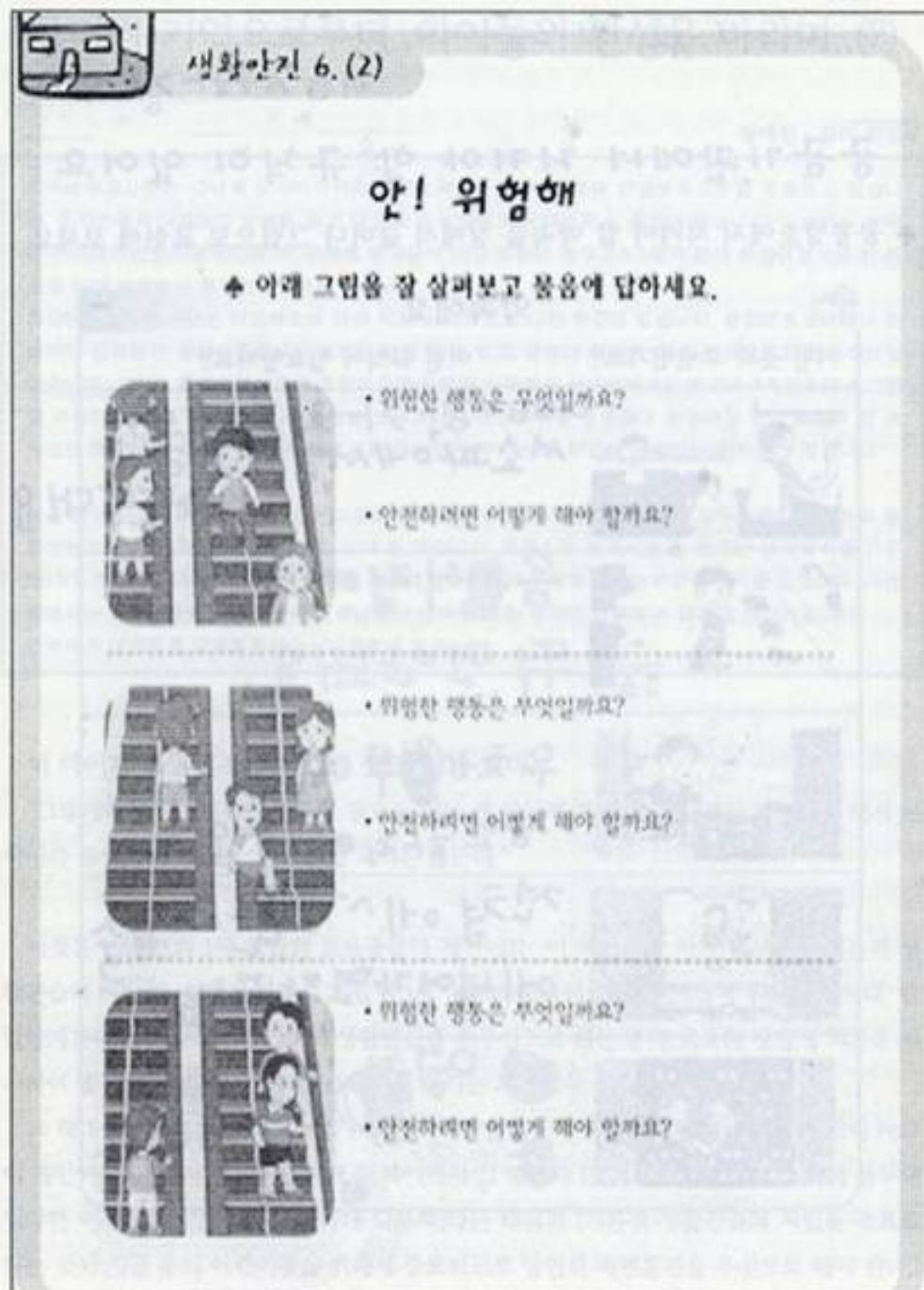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굴어야 합니다.

자녀나 다른 사람의 옷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굴게 합니다. 아주 어린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불을
안전하게 끄는 행동을 연습해 보며,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합니다.

참고 7 불조심 포스터 만들기



참고 8 활동자-앗, 위험해



참고 9 활동지-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름 서하정 ♥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해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약속해요	
어떤 곳의 그림인가요?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아빠랑 엄마랑 치킨집에서 서소파에서 놀아주세요 레는안돼요
	음식점에서 뒤면안돼요.
	우체국에서 장난하지안나오.
	전철에서 노란색 줄 에 넘어가면 안돼요.
	영화 볼지안나오 머리리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 공터의 기억으로부터..아이들의 환성을 바라며..(2)

성애원 · 정리 편집부

한국보육교사회는 12년째 오사카지역의 일한보육교류연구회와 한일보육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다매와리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은 성애원과 성희보육소, 희망의 문입니다. 다매와리 보육은 지역화하면 종로보육인데 즉, 연행법 반구성이 아닌 유아의 경우 3,4,5세가 함께 혼합연령으로 반 편성을 하여 보육하는 혼합연령보육을 말합니다.

혼합연령보육의 운영은 각보육소에 따라 서로 교육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연령보육이라 하더라도 성애원은 장애아통합보육(통합보육)을 하고 있고 성희나 희망의 문은 자립보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연령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애원에서는 한번에 4개 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성희보육소는 연행법 보육과 혼합연령보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의 문 보육소는 혼합연령 속에서 짝(pair)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약간씩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성애원에서 발간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이란?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추구하는 것]을 번역, 요약 한 것입니다. 보육소는 보육시설을, 보모는 보육교사를 지칭합니다. 지난 호에서는 성애원이 어떻게 혼합연령보육을 추구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이번 호에서는 혼합연령보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보육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번역체의 어색함을 양해해 주세요. (다음호에 계속)

이 아이가 평생 혼자 화장실에 못 갈 리가 없다.

"그렇게까지 배변훈련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생 혼자 화장실에 못 가게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1982년의 1세 학급의 보육총괄의 제안이다. 이 제안으로 아기 돌보기인(기본적 생활관습의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해왔던 1세 아동의 보육에 새로운 시점이 부여된 것이다. 발달단계론적 사고방식이나 기본적 생활관습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래 보육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여 좀 더 어린이들의 놀이를 소중하게 하자는 제기였다.

그 해 1세아 보모를 중심으로 한 [비둘기 조]담당 3명의 보모들의 논의를 집약한 것이 바로 이 제안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보모들 사이에서 그 때마다 [모처럼 어린이들이 놀이에 몰두해 있다면 어린이들의 놀이를 소중하게 다루자]라는 의견과 [기본적 생활관습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당연히 배변훈련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 논의가 그 해 연말 무렵에 총괄단계가 되어 겨우 정리되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안되었던 것이다.

소변을 잊어버릴 정도로 놀이에 몰두하길

“어린이들의 놀이를 소중히 하자. 어린이들이 놀이에 열중하게 되면 뭘 수취(소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소변]으로 옷을 버리는 어린이가 나오게 된다.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도 좋다. 지금 배변훈련을 소홀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생 혼자서 화장실에 못 간다고 할 수 없다.[소변]이 나오면 보모가 마루를 닦으면 되지 않는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를 적셨다고 해도 소변이 나올 정도로 몰두하여 놀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그걸 택한다.”라고 비둘기조의 총괄은 말하고 있다. 비둘기 조의 총괄은 “1살이 되었으니까 ○○을 할 수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얼마큼 어린이들을 힘들게 하였는가! 그리고 보모도 때로는 자기 모순을 안으로 감추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였는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두는 것은 아니다. 보육자가 어린이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경우는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수용하며

지금까지[아기]라고 보아 온 0세~2세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놀이를 가진 그리고 친구를 가진 하나의 어린이로서 보육하는 것이 중요함이 제안되었다. 동시에 지금 자신의 눈 앞에서 생동감 있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 바깥 다가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의 확인이 있었으므로 다음 해부터 1.2세 어린이들의 혼합연령보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3~5세 어린이들의 혼합연령보육에서도 또, 1.2세 어린이들의 혼합연령보육에서도 [지금]이 어린이들의 놀이를 소중히 여기자[이 아이의 친구관계를 소중히 여기자]가 가장 기본적인 테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보육의 기본으로서 놓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차폭폭 리듬놀이

“2살~우리 기차 폭폭해요.”

“~출발신호~”

“그대 기차 폭폭은 이빨에 양손을 올 것으로 구부리고~”

1.2세 어린이 혼합연령보육 학급에서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시작했지만 어린이들은 좀처럼 기차모양이 되어주질 않는다. 계속 설명을 해 보지만 어린이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

이다.

“무리야. 이 아이들은 전철밖에 본 적이 없는데다 고작해야 전기기관차 밖에 본 적이 없어 증기기관차 같은 건 본 적도 없어. 이 아이들에겐 상상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1.2세 어린이반의 증기기관차 놀이는 끝날 형국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아 담임인 野島보모는 梅小路의 조차장에 나가 실물의 기차를 보고 온 것이다.

“梅小路에 가요. 이 아이들 진짜 기차를 본다면 크게 기뻐할 거예요.”

다음 날 보육원에 도착하자마자 野島보모는 [梅小路에 가요]라고 다른 보모들에게 호소하였다. 하지만 메소로는 阪急을 타고 四조 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버스로 가야잖아요. 5세 어린이들도 그렇게 멀리까지 간 적이 없는데[무리예요][그렇지 않아요. 전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면 바로니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원장 선생님도 함께 가고 보모의 수도 확보한다면 갈 수 있어요][梅小路에 갑시다]파의 열의에 저서 먼저 1.2세 어린이반이 [梅小路에 갑시다]파가 되어 원내의 다른 보모들의 열려올 뒤로하고 梅小路에 가게 되었다.

1.2세 어린이들의 梅小路에 가기 나중에 남은 반의 보모들에게서[앞뒤 생각 없이 제멋대로인 B형과 아무 거리낌 없는 O형이 데리고 간 것이니 별수 없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전 움직이는 증기기관차의 실연에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감격하여 1회만 볼 예정이었으나 꼭 다시한번 보고 싶어서 다음 실연시간까지 기다려 두 번이나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는 굉장했다.

어린이들은 기관차와 함께 칙칙폭폭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도 감격하여 15분 정도 실연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3시 간식시간까지는 돌아올게요]라고 출발하였으나 결국 실제로 보육원에 도착한 시간은 5시였다. 조마조마하면서 배웅했던 남은 보모들은 걱정하면서 더우기 이미 마중나온 보호자들에게[금방 올겁니다]라고 변명을 해 가며 바짝 바짝 애를 태우면서 梅小路에 간 학급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움직이는 증기기관차에 감격한 梅小路조의 어른들은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린데다. 버스와 전차에 탄 어린이들이 피곤하여 자버렸고 또한 어른들은 빨리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황하여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를 본 감격은 1.2세 어린이들에게 계속되었다 梅小路에 간 것이 10월 말경이었는데 그 후 1.2세 어린이들의 반은 증기기관차 일색. 11월이 되면 작품전이 열리고 1.2세 어린이 반도 작품을 출품하는데 물론 테마는 기차 1.2세 어린이들의 그림이다.

모양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힘 있게 솟아오르는 증기의 박력은 압도적, 정말로 폭폭하고 증기가 나오는 것 같았다.

野島보모는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칙칙폭폭' 기차 흥내를 내거나 '기차왔다' 라든가 '연기가 나왔었다' 등 야단법석이에요. 그림 그리기로 그렇게 즐거워할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3월 생활발표회에서도 어린이들은 기차의 연기를 하였는데 그 박력은 한 마디로 굉장했다. 대체적으로 실증내기 쉬운 12세 어린이들이 10월부터 3월까지 하나의 테마에 몰두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것, 진짜 기차의 박력이었다.

어린이들에게 보육자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그해 총괄에서는 이 梅小路견학을 자화자찬격으로 총괄하면서 "보통하는 행사로 할 일은 아니다. 역시 특별교육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한 보육을 보육자의 강한 사상을 넣어 했기 때문에 더욱 어린이들도 즐겁게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일은 어린이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자의 즐거움을 전달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이런 일까지 함께 했다" "재미있다"라는 공동체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보육자에게 그런 일이 있으므로(가능하므로)어린이들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풍풍산을 향하여

이제까지 5세 어린이만 원내 1박을 해 왔으나 1981년에 3,4,5세 어린이들 전체에 전면적인 혼합연령보육이 시작되어,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3세 어린이 4세 어린이들도 당연히 1박 보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5세 어린이들만의 모임이 없다면 원내 1박에 더하여 5세 어린이들만 원외에서 1박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5세 어린이의 원외 1박 보육은 1982년 7월 大阪市교외보육소에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 원외에서 1박을 한다는 사실로 기획 단계부터 보육자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5세 어린이들은 손님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5세 어린이 집단으로서 -그 해 초반부터-이 기획을 하면서 기획의 최대 바램이었던 "친구 의식을 기르자"는 호지부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외보육소]이기에 지나치도록 모든 것이 정비가 다 되어있어서 "모두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 내자"는 요소도 적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등산]계획이 나왔다. 5세 어린이가 오를 수 있는 산, 숙박 가능한 시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 결과 발견한 것이 [풍풍산]이었다. 표고 680m, 정상까지 8km, 숙박예정지 本山寺

까지 5km.

5세 어린이들에게 약간 힘들지도 모르겠으나 그럭저럭 괜찮은 조건이 아니겠냐고 당시의 기록에는 쓰여 있다.

그러나 [등산]은 첫 시범단계이므로 보호자들로 부터 "우리 집 아이를 올라가게 할 겁니까?" "5세 애들한테 등산은 위험이 너무 많지 않나요?" 등 불안의 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비해 수명의 보육자가 감시하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등산연습을 겸하여 [5km산책]과 제방을 이용한 언덕길 오르기 놀이 등을 계속하여 왔다.

이 해 풍풍산 등산에는 다운중후군의 장애를 가진 00 군도 참가하였다. 그 때의 상황을 원내 보호자용으로 발행하고 있는[뉴스 공동 보육]에 실린 岡戸보모의 보고에서 발췌 인용한다.

00군의 경우, 계획 당초부터 부모의 걱정이 무리가 아니었다[그냥 있어도 힘들어 하는데....장애를 가진 우리 애한테 등산같은 것은 더더욱 무리고,혹시나 ...]다른 보호자들의 불안도 그렇지만[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00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그 어린이 나름대로 [등산]에 참가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00도 함께 가고 싶어요][오를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보육자에게 [5km나 길게 하고 본인은 걷고 싶지 않을 지도 모르고, 본인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친절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고...]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보육을 되물게 하였다. 그러나 정말[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등산]이 무리일까?그들으로 손을 잡자[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오르면 된다]라고 함께 오를 생각인 어린이들의 말에 다시 한 번[나]혼자서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생활해 간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장애아]를 배제한 1박 보육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현대 경쟁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마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더욱[장애아]가 함께 참가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정상에 오르는 것 이상으로 어린이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길러주는 것이 아닐까

어제 내린 비로 습기를 잔뜩 먹은 공기가 7월 햇빛에 달구어져 마치 사우나 같은 산길. 닭아도 닭아도 흘러내리는 땀 **에서 두 시간, 5km의 산길을 무거운 가방을 메고 5세 어린이 전원이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00의 경우[언제 지쳐서 녹초가 될까,

언제 주저 앉아버릴까라는 보육자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고 나무와 꽃을 가리키며 얘기하기도 하고, [야호]라고 모두 소리 내어 신호를 하면 [야호,야호]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손을 잡기는 커녕 앞장서서 걸었던 것이다.

그럴 리가...

조금도 걸으려고 하지 않았던 5km산책의 모습이 보육자의 머릿속에 또렷한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힘으로 산을 오르려는 모습이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주었다. 그를 친구들의 격려와 이야기가 [저기까지 가고 싶어]라는 기분을 끌어내었던 것이다. 목적지를 나타내는 길표지와 절의 出間을 발견하고 모두 저도 모르게 '와' 하고 환성을 질었다.

풍풍산 등산, 그해 그해의 많은 추억을 남기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육자인 어른들도 솔직히 말해 자기 혼자도 혁혁대는 풍풍산 등산. 그런 상황인데 백합(5세 어린이)어린이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격려해주면서 등산을 한 것이다. 이러한 풍풍산 등산의 제1회가 00과 함께 올랐던 풍풍산이었다.(계속~)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여섯번째-

고정미 · 회원/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유아국악강사

도깨비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귀를 막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왜~~그러면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린이 인권에 반하는 행동입니까? 서정은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도깨비는 도깨비랑 놀아야하는데, 사람하고 놀자고 하는 도깨비,

돈을 빌려가고 나서 자꾸만 자꾸만 (매일 밤) 잘 뻘뻘하고 하며 돈을 주고 가는 도깨비,

도깨비 터에 집을 짓는다고 지어놓은 집을 다 부서놓는 도깨비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해 도깨비 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만 하는 도깨비들,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도깨비들은 굿거리장단을 좋아한다며(장단공부를 하면서 굿거리장단은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함),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으면 도깨비들이 우리 어린이집으로 놀러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걸어 다닙니다(이때 형광등이 하나 정도 꺼진다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하면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선생님의 입에선 창작동요 '산도깨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잔뜩 긴장한 분위기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하면서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이들은 구석으로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웅크린 채 엉덩이를 쪽 내밀고 소리를 지르지요~)

사실은 도깨비가 너희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만 도망가서 도깨비가 속상해한다고 달래보면서, 자진모리장단으로 휘모리장단으로 춤을 추며 한바탕 신나게 돌아옵니다.

잔뜩 긴장했던 분위기가 축제분위기로 바뀌면서 도깨비와 친구가 되어 함께 뒹굽니다.
창문너머로 도깨비와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나면, 뿌듯한 기분으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도깨비이야기하나 풀고갈까요?

우리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는 부평4동이라고 하거든, 저기 옆에 큰 길을 건너면 부평5동이라고 한대, 옛날 부평5동에 도깨비 터라고 있었거든. 이 도깨비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 너도 나도 그 도깨비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뭐야. 그래 이제 김선비가 그 땅을 사서 푹푹푹 푹푹 집을 짓고 하룻밤을 잤거든. 자고 일어나니 집이 폭삭 내려 앉는 거야. 박선비가 땅을 사서 푹푹푹 집을 짓고 하룻밤을 잤거든. 자고 일어나니 또 집이 폭삭 내려 앉는 거야. 강선비도 이서방도 한서방도 집을 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폭삭 무너져 내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폭삭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 누가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겠냐 말이야. 그래 이제 도깨비 터에 다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았대.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던 어떤 아줌마가 어찌어찌 살다보니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거야. 그러다가 이 도깨비 터 이야기를 듣고 부평5동에 내려와서는 그 도깨비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푹푹푹 푹푹 집을 다 짓고 서는 잠을 자고 있었거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는 잠이 와야지. 그래 이제 졸린 눈에 힘을 잔뜩 주고서는 방에 앉아있었어. 잠시 후에 밖에서 시골 시골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도깨비 터에다가 누가 또 집을 지었냐고 하면서, 부숴버리자고' 난리가 난거야.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가서 도깨비들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 내가 지은 집인데, 너희들이 왜 부수냐고. 도깨비들은 우리 터에다가 왜 집을 짓냐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난리가 난거야. 그러다가 어떤 도깨비가 우리 이리저 말고 수수께끼를 내서 아줌마가 못 맞추면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우리가 못 맞추면 이 터를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 이제 도깨비들이 수수께끼를 냈어. "아줌마,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이 뭔지 아슈?"(이때 아이들이 나서서 도와준다. 일부러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낸다.) "아, 영감이지!" 아줌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 이제 아줌마가 문제를 낼 차례거든. "도깨비들이 감을 수는 있는데 풀 수는 없는 것은 뭐냐?"(이때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려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도깨비들이 맞추면 어떻게 하냐고 대답하는 것을 말리는 아이들도 있다.) 도깨비들이 난리가 난거야. 너 아냐? 아니 몰라 너는 아냐? 아니 몰라..... 그래 이제 문제를 못 맞춘 도깨비들이 저기 멀리 이사를 갔단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감을 수는 있는데 풀 수는 없는 것은 뭐냐?

지난 호에 이어서 '강강술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명 | 문쥐새끼 놀이. 잡았네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

문쥐새끼 찢룩찢룩 / 가사리 벗이여

문쥐새끼 찢룩찢룩 / 가사리 벗이여

(포리파세~)

잡았네 잡았네 문쥐새끼를 잡았네

콩하나 팥하나 땡겼더니 오곡 백곡이 절씨구

콩콩 전라도 문쥐새끼를 잡았네

콩하나 팥하나 땡겼더니 오곡 백곡이 절씨구

내포리 잡기와 남의 꼬리잡기놀이가 있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위아래 해당하는 문쥐새끼놀이를 부르다가(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디딘다) "포리파세~"하고 외치면서 자기 줄의 맨 뒤에 있는 꼬리를 잡으러 다닌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위아래 해당하는 문쥐새끼놀이를 부르다가 "꼬리 파세~"하고 외치면서 상대방의 꼬리를 잡으러 다닌다. 이때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맨 앞 사람이 승부욕이 강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기고 진다는 생각보다 재미있게 논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다.

강강술래에서는 잡힌 꼬리를 두 명이 흔들어주면서 '잡았네' 노래를 부른다. 나머지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된다.

잡힌 꼬리는 상대팀으로 데리고 간다든가 하면서 놀이의 내용을 변형해갈 수 있겠다.

활동명 | 손치기발치기 - 동살풀이장단-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함박쪽박 시집가 종갓애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글종글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동살풀이장단에 해당하는 빠르고 경쾌한 노래이며, 둘씩 마주보고 손을 잡고 노는 놀이이다.
“손치기~”에 마주보고 서서 엇갈려서 손뼉을 친다.
“발치기~”에 마주보고 서서 엇갈려서 발을 친다.
“함박쪽박~”에 양손을 마주잡고 팔을 번갈아서 밀고 당기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다.
영명이를 뒤뚱거리며 밀고 당기는 모습이 아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게한다.

활동명 | 지와 발치 - 자진모리장단, 중모리장단-

어딧 어딧골 지완가 / 장자장자골 지와지
몇냥몇냥을 줬는가 / 열냥열냥을 주었지

(지와발세~)

어딧골 지완가 / 장자골 지와지
몇냥냥 줬는가 / 열냥냥 줬~네

자진모리장단으로 노래를 하면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머리를 옆으로 떨구면서 대형을 만든다.(기와를 엮은 모습) “지와발세~”하고 소리를 외치면, 중모리장단으로 몸을 옆으로 살살 움직인다. 맨 뒤에 양옆으로 부축을 받은 사람이 차례대로 등을 밟으며 지나간다. 긴 줄 양끝의 사람들은 지와를 밟으러 올라가고 내려갈 수있도록 층을 만들어준다.

아이들과 함께 '강강술래' 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매기고 받는 소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매기고 받는 소리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신나게 놀 수 있음을 경험해본다.
- 모든 부분놀이들을 충분히 놀아봐야 한다.
완판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유아들에게는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유아들에게 완판의 경험보다는 하나 하나의 부분놀이들을 충분히 놀아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자꾸만 잡아당기려는 아이들이 있다. 자진모리장단놀이에서 걷고뛰기의 경험을 제대로 많이 해본다. 몸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동-동-뜨는 느낌임을 분명히 한다.
- 실내에서는 양말을 벗고 노는 것이 좋다.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의 놀이를 선택해서 이어서 놀아보는 완판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한다면, 캠프때 저녁에(보름달이 뜬 밤이라면 더욱 좋겠죠) 손에 손을 잡고 놀아볼 수 있겠죠.

추석이 돌아오면 민속놀이를 대부분 진행하는데 이때 강강술래로 거하게 한번 놀아본다면 좋겠죠.

소풍이나 체육대회 때 풍물소리를 곁들여서 아이, 어른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로 놀아본다면 신명나겠죠.

다음 호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놀이들에 대해, 그림과 사진등으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윤선영 · 본회 전문위원, 전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고민은 본회 홈페이지 [보육활동상담]에 올려진 글들을 정리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 윤선영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고민 하나**

“돌팔이를 기다리던 중 잘못되어서 배속의 아이를 잃어 버렸습니다. 저의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제 어느 정도 추스렸는데, 동생을 많이 기다리던 5세된 아이(큰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적당한 대답이 되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궁금해 하는 많은 질문(아기는 언제 태어나? 엄마 뜨거운 거 먹으면 아기가 뜨겁다고 하지? 애기 태어나면 내가 잘 돌봐 줄게...)에 아무런 말을 못해주고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몰래 감추기만 합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달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이해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둘**

어제 저녁에 어섯 살 먹은 아들에게 저에게 자기가 죽으면 아빠 옆에 ‘심어 달라고 하더군요. ‘왜?’ 했더니 ‘만나게’라고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아이가 돌 되던 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채하면서 ‘심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묻는다고 하는 거야’하고 얼버무려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죽음에 대해, 아빠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죽음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기 어려운 정도에 비하면 사실 매우 간단하고 쉬운 주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일단 거부하거나 피하고 또는 거짓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슬픔 때문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포기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아쉬워하며 그 슬픔은 사실 견디기 힘들기도 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

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에게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죽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없고, 생명을 가진 것은 항상 죽음과 소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마치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았다가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땅 속으로 저 버리는 식물과도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그 식물이 자연재해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일찍 꺾여 버린다 해도 그 역시 생명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 역시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슬퍼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우리 성인보다 훨씬 우주의 섭리에 가까운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가 가족의 한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면, 어린이는 엄마의 슬픔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성인이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슬픔은 곧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한 유아가 놀이에서 죽음을 표현하기를, 두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한 집단(가족)의 한 사람이 죽자, 다른 집단으로 보내고, 그 곳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아기가 태어날 때) 오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머무는 곳 만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엄마, 아빠를 만나 살기 위해 태어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만나 난자와 정자가 ... 하면서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가 만든 것 이상으로 아이가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죽은 동생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슬픔을 앞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 동생은 세상에 나오기 싫어 다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럼 언제 와?”하고 묻는다면 “그야 그 아이가 오고 싶을 때 다시 찾아오겠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떤 연령이라 해도 우리 성인들은 성인 중심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미국에 갔다”든지 하며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죽음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발도르프교육을 창시한 슈타이너는 생명의 과정을 순환적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이 꼭 찼다가 그믐달이 되어 소멸되고 다시 초승달 그리고 반달 온달이 되듯이, 봄이 다시 돌아오듯이, 꽃씨가 자라 꽃을 피우고 졌다가 다시 꽃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인간도 세상의 삶을 살고 다시 정신의 세계에 돌아갔다가 또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사는 순환적 반복적 삶을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삶의 주체인 "높은 자아" 즉 "개별성"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의미는 자신의 삶의 동기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지금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다시 다음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자신만의 생명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죽음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래 고대 기독교에서는 순환적 사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일직선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순환적 의식을 소멸시켜 버렸다고도 합니다. 순환적 반복적 삶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입장을 떠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로 생각한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더 긴밀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들은 다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의 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장애인으로부터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종종 배우고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더욱 긴밀한 삶을 배우곤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성인의 경우 너무 감정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어린이는 진실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진정 느낄 수 있다면, 어린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성인이 언제인가는 극복해야 할 숙제일 뿐입니다. 극복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성인 스스로 찾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해맑은 세상 아이들 이야기

☺ 지영이의 부항뜨기(4세, 남)

뒤집기 하며 잘 노는 지원이(6개월)를 상대로 새 부항기를 시험해 보는 지영이.

지영: 지원아~ 오빠가 부항 떠 주께. 우리 어제 새로 사꺼든~

그리곤 뽕뽕 뽕뽕한 지원이의 허벅지 여기저기에 부항을 떠 놓습니다.

뭔가 싫어 가만히 쳐다보는 지원이

지영: (서너 개 뜨고 나서) 지원아, 시~ 원하께! 우리 엄마가 부항뜨면 시원하댔다.

☺ 아빠의 날적이 중 김가은(5세, 여)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그 귀한 백도라지를 가은이에게 달여 먹이려다가 홀라당 다 태워버렸네!

가은: 아빠, 나 사랑해?

아빠: 응, 사랑해!

가은: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어, 사랑해!

가은: 그런데 엄마는 왜 때리는데!!

가은: 엄마, 돈 있나?

엄마: 왜?

가은: 그래, 돈 있나구?

엄마: 그래, 돈 있다. 왜자꾸 묻는데!

가은: 그런데 왜 내 팬티 안사주노!

(입고 있던 팬티 중간에 구멍이 크게 났네요)

☺ 뽀순이(아다영 4세) 와 엄마(진미영)

엄살이 심한 오버우먼인 뽀순이(뽀갸이 생겼음)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눈약을 안 넣으려고 요 리조리 피하다가 끝내 엄마에게 붙잡혀 억지로 넣게 되었지요.

뽀순이: 진미영! 니 왜그라는데!! 자꾸 그라든 엄마 차 뿌아빠끼다.

겨우 달래서 눈약을 넣고 나니 하는 말,

뽀순이: 진미영! 수박이가 여기다 도장 꾸~욱 찍어 오랬다. 찍어도!!

다녕이가 내민 건 건강검진 신청서. ㅋㅋㅋ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은 2001년 경남 양산에 뜻 교사들이 모여 만든 교사 공동체어린이집입니 다. 해맑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크는 것입니다.



토끼풀 속에서 찾은 행복

서진희 · 회원

2005년 2월 15일

교문 앞부터 시끌벅적 하다. 입구부터 막혀있는 자동차, 수많은 사람들, 꽃이 보인다. 정신이 없다. 일단 우리 과 친구들부터 찾아야겠다. 우리 과 건물로 가니 아는 얼굴이 하나둘씩 보이 기 시작했다. 방학하고 2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다. 너무 반가웠다. 다들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있었다. 조교님한테 가니 학사모와 가운을 주셨다. 졸업앨범도 주셨다. 나는 당장 내 얼 굴부터 찾았다. 사진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짜증난다. 집에 가면 당장 침대 밑에 숨겨야겠 다. 얼른 앨범을 덮고 나는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는 친구들과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었다. 가 다가 무조건 아는 얼굴만 있으면 사진을 찍었다. 남는 건 사진뿐이겠다. 이렇게 정신없었던 졸업식을 끝내고 오후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너무 떨려서 말은 잘 못했 지만 일단 보고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2005년 2월 21일

졸업식날 면접 보았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수습기간이다. 아자 아자!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맡게 될 연령은 4세라고 한다. 4세... 하필이면 실습 때 4세 빼고는 다른 연령은 다 맡아 본 것 같다. 안타깝다. 그날 당장 집에 가서 4세 특징부터 찾아보았다.

2005년 3월 2일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 5명과 오늘부터 새로 들어오는 3명의 아이 들.. 이렇게 8명이 일년 동안 나와 함께 지내게 된다. 첫날부터 새로 적응하는 아이들 때문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3명인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삼 기존에 있던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렇게 우는 아이들을 달래다 보니 하루가

2005년 3월 25일

벌써 다 갔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번 3월은 토끼풀 아이들과 나, 모두에게 적응기간인 것 같다. 3월아! 빨리 지나가거라~

2005년 3월 25일

첫 월급을 탔다.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신기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부터 됐다. 우선 할머니, 엄마, 아빠께 용돈부터 드려야하고 또 내가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사야하고... 적금도 들어야 하고... 첫 월급이니까 친구들이랑 밥 한번도 먹어야하고... 핸드폰비도 이제 내가 내야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갔다. 이제부터 부모님께 용돈 안타 쓰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쓴다는 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흠, 그래도 아껴 써야겠지...

2005년 4월 15일

저녁 7시부터 부모 간담회가 있었다. 너무 떨렸다. 부모님들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다.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 봤는데도 너무 떨렸다. 뭔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이다.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 그런데 막상 간담회가 시작하자 나의 이런 걱정들은 싹없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부모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 가주셨다. 정말 2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간담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웬지 모르게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다. 이 뿌듯함은 무슨 뜻일까.. 음.. 아무래도 서먹했던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초임교사이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인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다.

2005년 5월 7일

졸업하고 처음으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다. 만나자마자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집 얘기부터 학교 때 얘기, 친구들 얘기 등등 수다의 끝은 보이질 않았다. 역시 여자들의 수다란...^^ 오후 내내 이야기만 한 것 같다. 그래도 아직 2% 부족했다.^^ 또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기약하

며 헤어졌다.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2005년 5월 24일

낮잠시간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놀고 잠을 잘 잤지? 정말 어느 순간부터가 하루도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영아반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다. 매일 어린이집 와서 엄마만 찾으며 울기만 했던 아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이제는 나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아이들 자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우리 토끼풀 아이들.. 하나하나 다들 너무 예쁘다. 애네들이 지금 곤히 잠들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선생님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앞으로도 잘 해보자! 토끼풀! 화이팅이닷!!

토끼풀의 꽃말을 아시나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좌충우돌 늦깎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6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집 귀염둥이! 아프지만 말고 커다오!

김수연 · 회원

2004년 11월 22일

12시가 넘어서야 재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 이녀석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놀자고 한다. 누워 있는 날 의지삼아 벌떡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는 손을 띠고 자기 혼자 중심을 잡고 선다. 그러다가 쿵 주저앉고, 이 과정을 거짓말 좀 보태 100번도 넘게 했다. 지치지도 않나! 처음엔 '아 이구 잘하네' 하며 맞장구 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험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이제 그만 하고 자자' 하며 달래다가 급기야는 엉덩이도 맞아가며 새벽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재웠다. 예은이를 키우면서 많이 배우게 된다. 아기들처럼 노력하면 안되는게 없고 못하는게 없겠다싶다. 아기들의 놀라운 능력은 나를 매번 감동시킨다. 또한 나를 지치게 한다 ㅠㅠ

2004년 11월 23일

새벽 예은이가 흐느끼면서 자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좀 혼냈다고 싶으면 어김없이 이렇게 자면서 흐느킨다. 잠 안자는게 뭐 그리 잘못된것도 아닌데 내가 졸립구 피곤하니깐 짜증이나면 혼을 내게 된다. 미안타. 늦게까지 끌고다닌 예미 탓이지 예은이가 잘 안 떨어진다. 진득이 같이 내게 붙어 있으려고만 한다. 그러면서도 혼자 잘 논다. 기특하다. 어젯밤 땀흘린(?)한

덕분인지 물건 담아있던 박스를 의지삼아 벌떡 일어섰다. 식탁 밑에 서서 하얀이를 보이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2004년 11월 30일

자고 일어나더니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 출제 잤나? 모기에게 또 물렸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2004년 12월3일

소아과에 다녀왔다. 오른쪽귀가 약간 붓고 충혈이 되어있다고 한다. 3일치 약을 받아왔다. 약먹이기가 고역이다. 예은이 약먹이는 과정 1단계 우선 먹일 약을 약수지에 넣고 흔들어 놓고 물컵도 준비한다 참 가제수 건도 세팅완료! 2단계 예은이를 내 다리 사이에 끼고 고개를 젖히고 왼손으로 양볼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약을 먹인

다. 이때 많이 울면 왜하고 먹은약 다 토해버린다. 그러므로 울리지 않고 먹이는게 관건이다. 정말이지 약먹이기 너무 힘들다. 병원에서 철분이 모자를 수도 있으니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기3마리 4500원주고 사왔다.

2004년 12월 10일

드디어 배밀이 끝내고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을 구사하는게 반갑지만 너무 빨리 커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지금 아니면 못 보는 모습들 예은이 크는 모습이 아깝다. 뒤집기, 혼자앉기, 붙잡고 일서서기, 네발로 기기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만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재미와 감동 그리고 환희. 어디에다가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꺼내보고 싶다. 내가 일을 했으면 이렇게 소중한 모습들을 많이 못 보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씩씩이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긴 무수한 엄마들 생각이 났다. 이토록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보육하고 있었음을 그 귀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음을 새삼스레 감사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24일

예은이가 어제 용가를 안하더니 오늘은 두 번이나 용가를 했다. 음순있는 쪽에 발장게 뭐가 났다. 통풍에 신경써야할 듯 옆집 서인이네에 있는 동물 가면을 얼굴에 쓰면 예은이가 얼굴을 벌겍게 하며 용을 쓰며 온다. 무서운가 보다. 하긴 동물가면의 눈이 동그랗게 뿔려있어서 내가 봐도 좀 무섭다. 그치만 우는 모습이 귀여워 자꾸 하게 된다. ㅋㅋ 책을 제법 보기 시작했다. 고사리손으로 책을 들춰보며 책장을 제법 잘 넘긴다. 기특하다. 현재 예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달님안녕' 이다. "안되요, 나오면 안되요, 달님이 우니까요" 이부분만 나오면 손을 흔든다. 뽀이 뽀이를 달님안녕을 통해 배웠다. 이유식에 신경을 더 써야 할 듯. 잘 먹지않아 걱정이야. 병원에서 혈액이 안 좋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아 봐야하나 걱정이야.

2005년 1월 28일

예은이랑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동기동창인 시온이와 성찬이가 놀러왔다. 거실에서 한참 이것저것 가지고 놀다가 시온이랑 예은이 둘이만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놀다 나온다. (아니 ~ 둘이 눈 맞은거야~ 그런거야~) 시온이도 호기심덩어리다 참 귀엽게 컸다. 음악만 나오면 큰엉덩일 들썩거리며 춤을 춘다. 몸 흔드는 것도 각자 개성인지 예은이는 앉아서 앞뒤로 흔들었는데 시온이는 양옆으로 고개까지 가우뚱거리며 흔든다. 소리나는 전화기장난감 앞에 앉아서 서로 사이좋게 흔드는 아이들모습이 이쁘다.

2005년 2월 3일

18개월된 아이엄마인 채영이랑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으려는데 방이 있는 곳을 찾으려니 한참을 돌아다녀야 했다. 애랑 다니려면 제약이 많다. 우선 방이여야하고 아님 유아의자가 있는 곳을 찾게되고 메뉴도 아이랑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메뉴는 대구 지리탕! 옆에 앉아서 좀 받아 먹는다 싶더니 탁자 가장자리를 잡고 빙빙돌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한발자국 둘발자국 세발자국 연속걸기에 성공했다. 예은아 이제 드디어 걷는구나

2005년 2월 14일

아이를 안고 지하철에 타면 노약자석에 주로 앉는다. 그리고 아기띠를 풀러 예은이를 무릎에 앉힌다.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꼭 한말씀 하신다 "남자요, 여자요" "네 여자아이가요" "꼭 남자같네~" 그리곤 남동생보게 생겼으니 빨리 하나더 낳으라고 강요(?)하신다. 꽃무늬원피스에 분홍신발을 신겨도 항상 듣는 말이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나무살 먹은 아이들도 "남자아이가 같애 여자아이가 같애" 그러면 "얼굴은 남자고 눈만 여자같다"고 대답하고 대 여섯살 먹은 아이들은 "잘생겼니, 예쁘니"하면 잘생겼다고 대답한다.



머리에 술이 별로 없기에 이해도 되지만 나중에 우리 예은이 상처받을까 겁난다. 나도 초등학교때 커트머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린 남자아이가 내 뒷모습을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걸 듣고 절대로 다시는 커트머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예은이의 본모습대로만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살림.농촌살림.생명살림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www.ecokid.org)

류지민 · 우리네기획팀원

봉천동에 위치한 아담한 사무실. 자연물 놀이감이 여기저기 있고 달팽이도 있어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은 놀이방이라 해도 될 만한 그곳에서 상무이사로 계시는 양은희 선생님을 만났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을 자연의 본성을 지닌 선한 존재로 보고 아이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원기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교육이다. 아이들의 본성에 맞는 -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욕구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태유아교육은 먹거리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이가 뭘 먹느냐에 따라 성장과 성격과 인지, 모든 관계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아이의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여야만 그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을 통해서 땅이 살고, 자연이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중함을 알고 전체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생태유아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생태유아공동체에서는 절기별로 세시풍속에 맞게 하는 행사와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봄에는 개구리 학교와 모내기, 오리입식(오리농군일터보내기) 등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여름에는 작물 키우기, 음식만들기, 갯벌 체험, 가을에는 가을걷이를 한다. 그중 크게 하는 행사는 오리입식과 가을걷이다.

오리입식은 6월에 오리를 논에다 넣어 주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다. 아이들이 오리에다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논에다 넣어주면서 올해 농사가 잘 되길 바란단다. 올해는 오리입식을 하면서 농민들과 유기농 쌀을 먹겠다는 협약을 맺었다고도 한다.

가을에는 다시 논에 가서 허수아비도 세워주고, 가을걷이도 하고, 짚으로 공도 만들고 줄넘



기도 하고 논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반응도 너무 좋다. 무엇보다 아이들 먹거리가 달라졌단다.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대신 유기농 먹거리를 먹이면서 아토피나 편식이 줄고 섬유질을 많이 씹음으로써 치아 발달도 좋아졌단다.

원에서 유기농 먹거리를 하면 제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계절에 맞는 음식으로만 유기농 식단을 하면 그리 비싸지는 않다고 한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몸에 좋다. 일반 원에서의 식비는 1,740원이고, 유기농 식단 급식비 2,300원이다. 이 차이를 없애려면 일단 원에서 가공 식품을 끊어야 한다. 또한 생일잔치나 어린이날에 먹는 피자, 콜라, 과자 등 아이들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바꿔나 가면 제정에는 별 차이가 없다. 사립시설은 부모교육이나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때 추가급식비를 5,000원에서 15,000원정도 더 받아서 유기농 먹거리로 급식을 한다.

먹거리 배송 외에도 친환경으로 표백제가 안 들어가는 세제, 비누, 휴지, 키친타올 등도 배송한다.

부산에서 처음 창립한 생태유아공동체는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전주, 제주, 등 전국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은 교사와 부모, 아이로 되어있으며,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장, 교사 교육은 생태교육의 필요성과 환경교육, 먹거리 교육, 계절별 현장교육(봄나들이, 여름살이, 숲 체험 등)을 하고, 부모 교육은 먹거리교육과 자연 건강법 등을 한다. 교육매체 청과물 조사와 색소 실험도 직접 해본다.

살림을 잘한다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을 먹여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고 바르게 기르고자 하는 아이살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화학농업으로 죽어 가는 땅과 농촌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농촌살림, 생명살림.

이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가 아닌가 싶다.

[참고] 2005년 7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식단

날짜	오전식점	점심	오후식점
1(금)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기장밥, 들깨무채국, 흰살생선전, 상추겉절이, 김치	감귤쥬스, 삶은감자
2(토)	참외, 치즈	메밀냉면, 김치	
3(일)			
4(월)	수박, 멸치볶음	보리감자밥, 애호박감자국, 유정란야채말이, 콩조림, 김치	조랭이떡볶음
5(화)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열무비빔밥, 팥이버섯된장국, 고추장볶이, 치킨볼, 김치	산양유, 오곡풍
6(수)	복숭아, 멸치볶음	차조밥, 돈육김치찌개, 파리멸치볶음, 열무무침, 김치	현미식혜, 꿀떡
7(목)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현미밥, 소고기미역국, 북어채무침, 감자볶음, 김치	미숫가루, 삶은감자
8(금)	완숙토마토, 멸치볶음	자장밥, 오이미역냉국, 단무지	산양유, 소보루빵
9(토)	참외, 치즈	콩국수, 김치	
10(일)			
11(월)	참외, 멸치볶음	김장콩밥, 들깨미역국, 흰살생선전, 시금치나물, 김치	김장계국, 수박
12(화)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오징어덮밥, 콩나물국, 부추겉절이, 수박	산양유, 오곡풍
13(수)	복숭아, 멸치볶음	감자보리밥, 소고기무국, 유정란장조림, 콩나물무침, 김치	현미식혜, 상채인절미
14(목)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현미밥, 두부아욱국, 소고기우영조림, 고추나물, 열무김치	산양유, 카스테라
15(금)	방울토마토, 멸치볶음	삼계탕, 짬두기, 수박화채	미숫가루, 궁중떡볶이
16(토)	참외, 치즈	출면, 단무지	
17(일)			
18(월)	참외, 멸치볶음	말이현미밥, 파지락미역국, 조랭이떡볶음, 가지나물, 김치	들깨국, 수박
19(화)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보리밥, 동태국, 유정란야채말, 시금치나물, 김치	산양유, 우리밀식혜, 말기름
20(수)	수박, 멸치볶음	팔밥, 맑은장국, 오징어삼겹살볶음, 오이소박이, 김치	유두면, 수단
21(목)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참깨밥, 닭개장국, 구이김, 양배추샐러드, 김치	팔방수
22(금)	완숙토마토, 멸치볶음	수수밥, 북어콩나물국, 삼치구이, 쪽깃나물, 김치	미숫가루, 삶은감자
23(토)	복숭아, 치즈	감자수제비, 김치	
24(일)			
25(월)	참외, 멸치볶음	참깨밥, 닭뿔, 오이소박이, 미나리초무침, 김치	과일화채, 유기농누룻스낵
26(화)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카레라이스, 유정란파국, 김치	산양유, 야채오일빵
27(수)	완숙토마토, 멸치볶음	콩나물밥, 오이미역냉국, 호박팽이버섯전, 무생채, 김치	현미식혜, 현미가래떡, 찰조청
28(목)	술골요구르트, 콩볶음	말이현미밥, 아욱국, 굴비구이, 과일샐러드, 오이소박이	팔방수
29(금)	수박, 멸치볶음	수수밥, 감자국, 돼지불고기, 상추쌈, 김치	미숫가루, 현미떡볶이
30(토)	참외, 멸치볶음	감국수, 김치	

* 위 식단은 유기농 식재료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인권감수성키우기워크숍 개최

지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에서 2박3일간 "보육교사 아동인권 감수성키우기 워크숍"을 여성부의 후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재연(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아동권리학회)교수의 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나는 어린이 인권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아동의 놀 권리(조선경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위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아동의 건강권 김미진(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미디어에서 아동의 권리 이정주(서울YMCA 어린이 영상문화연구회 미디어교육팀장)등에 대한 부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감수성키우기 워크숍(서정은 본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은 우리나라의 아이, 어린이집 속의 아이, 보육교사인 나와 아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참가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여하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의 발족 기자회견이 2005년 6월 30일 오전10시, 느티나무(안국동)에서 있었다.

참여단체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 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이상 가나다순)은 ['보육료자율화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발족에 즈음하여]라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보육을 시장의 경쟁에 의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율화 논의를 즉각 중단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하였다.

연대는 부실한 급·간식문제, 어린이 통학버스 내 질식사 사건 등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책하였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지난 5월 4일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하 보고서)' 국정과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공식발표도 되지 않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보육료자율화(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어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이와함께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계층만의 보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속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설치비의 지원율을 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대는 향후 보육의 공공성확대를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부모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하고,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내고,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이버 캠페인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료 자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악 저지 활동과 동시에 지자체 보육예산 분석과 보육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하고, 지역단위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운동 전개하여 보육시설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때까지 국공립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홈페이지

www.withchild.or.kr



3 7월4일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 참가

한국보육교사회를 포함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6개지부 28개 회원단체들과 경실련, 국제엠네스티 본부,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본과 필리핀의 여성활동가들이 한국여성들의 빈곤과 폭력 추방,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심화되고,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르고 있으며, 여성의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세계 161개국 6000여개 여성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세계여성행진의 한국행사로써 진행되었다.

여성을 빈곤과 폭력으로 몰아넣고 있는 세계화의 질서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세계여성행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서 5년째를 맞는다. 2005년 세계여성행진은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시작되어 아메리카 대륙을 모두 행진한 후 아시아에 도착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호주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 필리핀으로 이어지고,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161개국 60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연대의 켈트와 국가별 현장이 도착하는 곳은 전 세계 53개국이며,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 된다. 10월 17일에는 각 국가별로 자국 시간으로 12시부터 1시 사이에 행사를 가지게 되어 하루 종일 전세계에서 여성빈곤철폐행사가 진행된다.



4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

현직 국회의원의 인권지수, 의심스럽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발의안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들어 있어

국회는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부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법제화를 전면 폐기하라.

1. 지난 4월 8일 18명의 국회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캠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윤근, 신중식, 김선미, 이원영, 조일현, 김명자, 정의용, 김효석, 한병도, 이호용, 주승용, 안민석, 노영민, 김성곤, 양승조, 김낙순, 최재천, 김태홍 이상 18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자기의 사 표현력 및 사실전달력이 부족한 영유아와 연관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총26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2. CCTV 설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의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한다.

CCTV를 설치할 경우 실제 관찰의 대상은 아동과 보육노동자이다. CCTV는 간단한 기계 조작만으로 촬영대상의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촬영대상인 아동과 보육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받게 된다.

실제 개인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스러운 병력이나 버릇 역시 남김없이 노출될 것이며, 관찰하는 자 역시 한정이 불가능하다. CCTV는 비단 해당 아동의 부모 뿐 아니라 같은 반의 다른 부모들이나 시설장, 내지는 CCTV를 관리하는 기술자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촬영당하는 것은 자기정보통제에 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비인권적 행위이다.

또한 보육시설이 주로 중소 사업장임을 감안하건대 이러한 엄청난 개인정보 자료에 대해 각 시설별 정보관리의 능력이나 책임 소재를 확신할 수 없으며, 실제 녹화내용이 유출될 경우 촬영



영 대상의 인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므로, CCTV관리자에 의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될 위험도 존재한다.

3. CCTV 설치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자 감시로 악용된다.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촬영되는 것은 보육노동자를 보육의 일주체가 아닌 시설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박탈이자 노동자 감시의 기제가 된다. 또한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상자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CCTV가 설치될 경우 모니터링은 시설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며,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4. 이번 발의 안에서는 '일부 영유아들은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부실한 간식 등 많은 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이 개정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듯이 CCTV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조치가 아니다. 해당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튼실한 교육, 교구와 시설 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하다.

5. 이미 지난 4월경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정한 바 있으나, 보육노조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고 바로 철회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90%가 민간시설이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 시장에 맡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 안이 밝힌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의 소지가 농후한 CCTV 설치와 같은 장치로 막으려는 작태는 실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진정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설비 투자의 노력,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타파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26억여원을 CCTV 설치에 쏟아붓는 행위는 부모, 보육인, 나아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2005년 6월 9일
한국보육교사회, 전국보육노동조합

5 여성부 보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 주최

지난 2005년 6월 14일(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에서 한국보육교사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등과 함께 여성부 보육정책1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여성부 보육정책 1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발제와 보육정책 이관, 변화와 과제에 대한 김종해 카톨릭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각 단위의 토론이 있었다.

피리 부는 아저씨를 부를까요?

-2005 대한민국의 아이들

박화명 · 회원

얼마 전 서른이 넘은 한 후배가 취직을 했다.

보육교사로 일한지도 꽤 오래되었고 아이도 둘이나 딸린 기혼자여서, 어린이집에서 일하기엔 썩 좋은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한번에 찻~! 취직을 하였다. 그것도 다름아닌 딸린 아이들 덕분에... 사정을 알고 보니, '연년생 자녀가 둘이 있어 배려가 된다면 근무지에 맡기고 싶다' 했더라. 그랬더니, 면접하던 원장의 안색이 밝아지며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데리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으나...

저출산 때문인지, 아동별 지원으로 바뀐다는 보육정책 때문인지 요즘 어린이집들 사이에선 우리 아이들 몸값이 보통이 아니다. 돈이 되는 방식을 따라 정책 결정도 바뀔 수 있고 또 치열한 원아모집 경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장이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여기겠지만, 우리 후배의 예처럼 다른 내용이나 기본 절차 등을 따지고 볼 것도 없이, 아이만 데려 온다면 원아정원만 채울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인 식이다. 도대체 돈벌이의 방법 말고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럼, 그렇게 데려다 놓은 아나 그렇게 유치해 온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12인승 통학차에 안전도우미조차 없이 타고 내리다가 사고가 나는 건 이미 재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씨랜드 화재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과자부스러기 개수 세어주거나 이 집 저집 제사음식 냉동실에서 굴리다가 해동시켜 먹이는 건 예사고, 이젠 아예 꿀꿀이죽까지 등장했다. 어린이집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다 보니 맛벌이가정에게 어필할 유치 전략이 필요했겠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침마다 정성껏 끓여 먹이는 영양죽' 컨셉이었나 보다.

타고 내리는 사고가 너무 흔했는지 이젠 아예 탔는지조차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얼마 전 이 무더위에 그 뜨겁고 답답한 차 속에서, 우리의 한 아이가 죽어갔다.

각종 지원금 횡령에 관리규정 어기고, 그래놓고 우기고, 함람미달 원장에 침묵하는 교사, 감독과 처벌은 사라지고 그러다가 세월가면 다시 원아모집하고...

도대체가 끝이 없이 터져 나오는 시설 비리, 교사 유린, 안전사각지대, 인권 말살이다.

다 그런 건 결코 아니겠지만 2005년 대한민국 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 없다. 정확히 말해 어린이의 인권이 없다. 이런 지경에, 정부와 여성부는 관리와 책임을 검토하기를 뒤로 한 채, 지원의 방식을 바꾸고 어린이들의 공간을 돈벌이의 시장으로 내다 맡기겠다 떠돌고 있다. 몸을 살찌우고 키워야 할 임무를 지닌 부실한 오장육부는 그대로인데, 겉옷을 멀끔히 갈아 입는다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나...

그 뿐만이 아니다.

놀 자유와 먹을 자유는 학원에 빼앗긴 아이들이 태반이다. 생활고를 비판한 자살에는 자녀 한 둘 쯤 데리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키우기 힘들다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이들을 때리고 버리는 건 예사가 되어 버렸다. 건행이 반찬인 부실도시락에, 갈수록 파렴치해지는 어린이성범죄 사건은 급기야 13살 소녀를 성폭행 후 압매장시키는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종교계를 등에 업고 어린이를 수단으로 돈벌이하는 가칭 스님까지 나섰다. 모 방송국의 고발 방송 이후 인터넷 토론장이 뜨겁더니 후속방송까지 준비 중에 있다 한다. 몇 개월 전 같은 사례를 미담으로 소개했던 방송3사들은 사과방송까지 내 보냈지만 '유아학대 사기꾼에 놀아난 언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2005년 6월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어로 '아동학대'가 떠오른 아~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물론 2005년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고귀하게 자라나는 특이한(?) 계층도 있다. 너무 특이한 나머지 우리 국적도 없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없지 싶다.



지금!
 제대로 돌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제대로 옷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놀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입혀주지 않으면,
 제대로 치워 주지 않으면,
 제대로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면,
 제대로 눈 맞춰 주지 않으면
 2005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피리 부는 아저씨를 따라
 서.....



좋은 아빠 되기 시~작~

파더링 fathering,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을 읽고

나병도 · 10세, 6세 아들의 아버지

여유가 없어진 탓일까 그간 책을 들어 본지 꽤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모처럼 아내의 권유로 “파더링”을 펼치게 되었다. 제목만 보아서는 그저 아빠 노릇 잘하라는 점잖은 얘기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면서 예의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 편하지 않은 심기를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나와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다른 이를 보는 편치 않은 느낌, 한때임을 인정하기 싫어 뒷걸음 치는 모순 등. 그래도 후련한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이 속 시원하게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그렇다.

우스운 상황이지만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니 정각 6시에 퇴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좋은 아빠되세요” 라고 회사는 말할 것이다. 아프지만 현실이다. 좋은 아빠가 되고픈 많은 남자를 인정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아빠되기에 기술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지한 아빠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한다기 보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아빠라는 전혀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 새로운 임무에 대해 아버지도, 학교도 그리고 사회도, 내 주위의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래서 서투르게 아빠라는 역할과 남자라는 역할을 착각하며 살아간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 아니 그렇다고 확신한다.

아빠가 되기 위한 기술을 전수 받거나, 배우거나 노력해서 터득하지 못했음을, 그래서 대단히 서투르다는 것을 먼저 시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첫걸음임을 구구절절 진짜 아빠들의 고백성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시인한다면, 남자로서의 위신과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아내

와 자식이 아빠를 "물"로 본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사실 두렵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해 본적도 없지만 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눌하면서도 진솔한 모습이 아내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다른 아빠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이는 가장의 위신이나 권위 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함과 아빠로서의 따뜻함이 더 큰 매력을 지녔다는 것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대단히 단순한 진리이다. 가정 내에서는 더욱 그 노력의 결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먼저 시인을 하면? 그 다음은?

흔하들(남자인 나도 인정하는) 아빠의 마음은 나중에 자녀들이 철이 들면 이해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다. 그래서 낮간지러운 표현은 아직도 서툴다. 그게 가장의 미덕이라고 인정한 시대가 있었고 아직 그분들의 영향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본다. 어쩌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볼 요량이면 공부는 재미있나? 커서 뭐가 될래? 뭐 가지고 싶은 게 없나? 라고 처음 몇 마디 물어보고는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과 대화라는 것을 잊고 산 까닭이다. 그래서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럽고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잡은 김에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스스로에게 제안 한다.

1. 집에 있을 때 TV/신문 안보기(책은 가능한 한 많이) 우리 집은 신문을 끊어 버렸음
2. 퇴근 시 자녀들에게 전화하기(깨어 있다면)
3. 문자나 메일로 편지 쓰기

현재 상황에서 위에 말한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예컨대 집에서 TV를 보지 않으면 일단 시간이 남는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무료하고 심심하겠지만 점점 그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아내나 자녀들에게 자연히 눈길을 주고 다음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퇴근 시 아이에게 전화로 알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에 왔을 때 좀 덜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

작할 수 있다. 또는 아이와 아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자간의 비밀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 문자 메일이나 서신은 아빠의 생각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아이들과 공유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아이들은 아빠의 행동에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빠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내와 공유하면 위의 수고들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지금 내가 실천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제 거리를 좁히고 나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겉모습과는 다르다" 라고만 몇대거리 없이 말하지 말자. 분명히 "겉모습은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어 보이지만, 당신과 너희들을 한없이 사랑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애정이 섞인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아내와 자녀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 애정을 실천하는데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복으로 아빠에게 답을 할 것이다.

말없음이, 가장의 권위가 미덕인 시대의 내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아니 동질감을 느껴 그나마 슬픈 이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듯이, 다시 내 아들이 아빠로서의 나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방치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그것 또한 욕심으로 끝나고 아빠와 아이들이 서로 미안해하며 평생을 보내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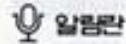
그 외로움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에게서 애정 표현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애정과 공감대 형성의 부재가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평생을 좌우할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정하는 아빠

표현하는 아빠

실천하는 아빠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빠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2005일본 오사카의 보육소(보육시설) 연수 신청 안내.

본회는 1994년부터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에는 본회에서 일본으로 연수자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에 소속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2주간 연수를 받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 상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
연수일시 2005년 10월 17일부터 2주간
연수비용 참가비 10만원
왕복 비행요금/식비 약 30~40만원
숙박비와 일본 내 교통비는 일본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이력서, 연수 계획서(연수 목표, 연수 후의 활용계획 등)
선발방법 본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4인을 선발
신청마감 2005년 7월 30일
발 표 2005년 8월 16일
문 의 0505-362-8568/ kdta@chol.com

*연수신청서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계획서 (분량제한없음)

1. 연수참여의 목적
2. 연수와 관련된 개인적 희망사항
3. 연수이후의 계획

2005년 한일보육교류 보육교사연수 참가신청서

신청자 인적 사항	신 청 자 명	한글	한문	영문
	전 화		손전화	
	E - m a i l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어 린 이 집 명			
	어 린 이 집 주 소			
	담 당 반 연 령		보육교사경력	
회원 활동 사항	자 격 취 득	년	월	기관명
	소 속 지 부			
	연 재 직 위			
	회 원 가 입 일			
회원활동 경 력				

위와 같이 2005년 한일보육교류 보육교사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05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보육교사회 귀하

※ 첨부서류 : 1. 참가신청서 1부 2. 연수계획서 1부

소식과 소식

보육교사자격관리 검정회의

5월13일 보육교사자격관리 검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정리팀 회의

5월19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정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 박정애, 황미혜 정리팀원이 함께 했습니다.

보육교사자격관리 검정회의

6월10일 보육교사자격관리 검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이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성부보육업무1년 평가토론회

2005년 6월 14일(화) 오후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에서 한국보육교사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한국여성노동자회의의회등과 함께 여성부 보육정책1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보육료자율화 저지와 보육예산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6월14일 보육료자율화 저지와 보육예산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준비모임

6월23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

6월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정리팀 회의

6월29일 한국보육교사회 10년활동 정리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 박정애, 황미혜 정리팀원이 함께 했습니다.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의 발족 기자회견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여하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의 발족 기자회견이 2005년 6월 30일 오전10시, 느티나무(안국동)에서 있었습니다. 서은희 공동대표와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회의

7월2일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은희 공동대표, 박은아운영위원, 박달신 운영위원, 김정애운영위원 박부자운영위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도봉구 구립어린이집 아동인권 감수성키우기 워크숍

7월2일 도봉구 구립어린이집 아동인권 감수성키우기 워크숍이 구립 보육교사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

7월4일 세계여성행진 한국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정애회원, 박인혜회원, 이선미회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가하였습니다.



(05년4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황미혜님 40,000 이정녀님 50,000 서은희님 200,000
오윤정님 50,000 계룡산갑사유스호텔 100,000

근로복지공단부천어린이집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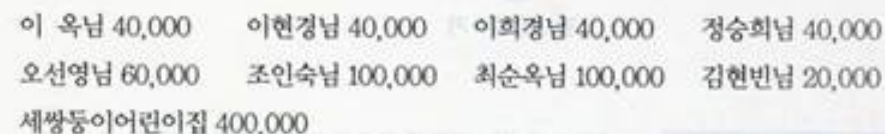
ya***** [일시]휴대폰 5,000 la*** [일시]휴대폰 10,000원
ar***** [일시]휴대폰 1,000원 re***** [일시]휴대폰 10,000원

•해피로그를 통한 휴대폰, 신용카드 후원 가능

<http://happylog.naver.com/childcare.do>

유기자님, 송미연님

신주영님 5,000	신아령님 10,000	이미정님 10,000	이정님 10,000
정승희님 10,000	박정애님 20,000	백선희님 20,000	서은희님 20,000
신현미님 20,000	양은희님 20,000	오영숙님 20,000	오윤정님 20,000
이미화님 20,000	이준구님 20,000	이지수님 20,000	장혜자님 20,000
전정옥님 20,000	정영학님 20,000	조선경님 20,000	주로미님 20,000
최영신님 20,000	하운하님 20,000	한만우님 20,000	한상원님 20,000
솔솔우님 40,000	안명희님 40,000	오경숙님 40,000	유희정님 40,000





편·집·후·기



형아 그게 뭐냐?

이번호 표지는 계룡산 유스호스텔에서 있던 인권 워크숍 기간에 참가자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육아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한 아이들의 모습을 김지희회원이 촬영하신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박은정, 박은아회원의 자녀입니다.

우리네아이들 재미있으세요? 장기구독자 확대에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권해주시고요, 추천인 주소 보내주시면 한부정도는 미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네아이들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류

아! 땀이 난다. 날씨도 덥고 머리를 짜느라 힘들었어요. 휴가 잘 보내고 9월엔 더 참신하게 해와야지/봉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서 사업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6회 발행하는 [우리네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구입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원회원이 되면.....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505-362-8568)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childcare.do>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505-362-8568